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해외 주요도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비교시찰을 통해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수 정책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활용 계획 및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드림

1 공무국외활동 개요

□ 기 간 : 2024. 5. 11.(토) ~ 2024. 5. 17.(금) (5박7일)

□ 시 찰 지 :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지

□ 주 제 : 서울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가치 창출

□ 방문기관 및 목적

방문기관	방 문 목 적
1. 슈테델미술관	슈테델미술관을 포함 마인강변 박물관거리를 시찰해 서울시의 박물관·미술관 연계 방안 벤치마킹
2. 하이델베르그 고성	현지 역사적 배경 및 재건·복원과정 확인을 통해 한양도성의 미래 발전방향 및 연계성 모색
3.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현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을 청취함으로써 입법적 노력을 통한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4. 라인 뤼데샤임 일대	드로셀가세의 골목 사례를 통해 서울시 핫플레이스 및 골목길의 발전·홍보방안 등 벤치마킹 등
5. IMEX Frankfurt 2024 초청방문	MICE 인프라 영향력을 경험하고, 서울 홍보관 활동을 통해 2025 ICCA 총회 유치전 지원
6. KTO 프랑크푸르트	현지인 관광 수요 증가 위한 논의 및 향후 협력점 모색
7. 괴테의 생가	역사적 인물의 가옥을 관광 자원화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8.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 (DOSB)	노인체육 및 e스포츠 등에 대한 정책 사례 청취 및 벤치마킹
9. 뢰머광장 일대	뢰머광장을 중심으로 대성당 및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10. 예술과 미디어센터 (ZKM)	예술, 공연, 전시, 교육 등 다목적 기능 시설의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서울시 시설 건립 가능성 검토

2 시찰단 역할 분담

□ 시찰단 구성 : 총 10명

○ 단　　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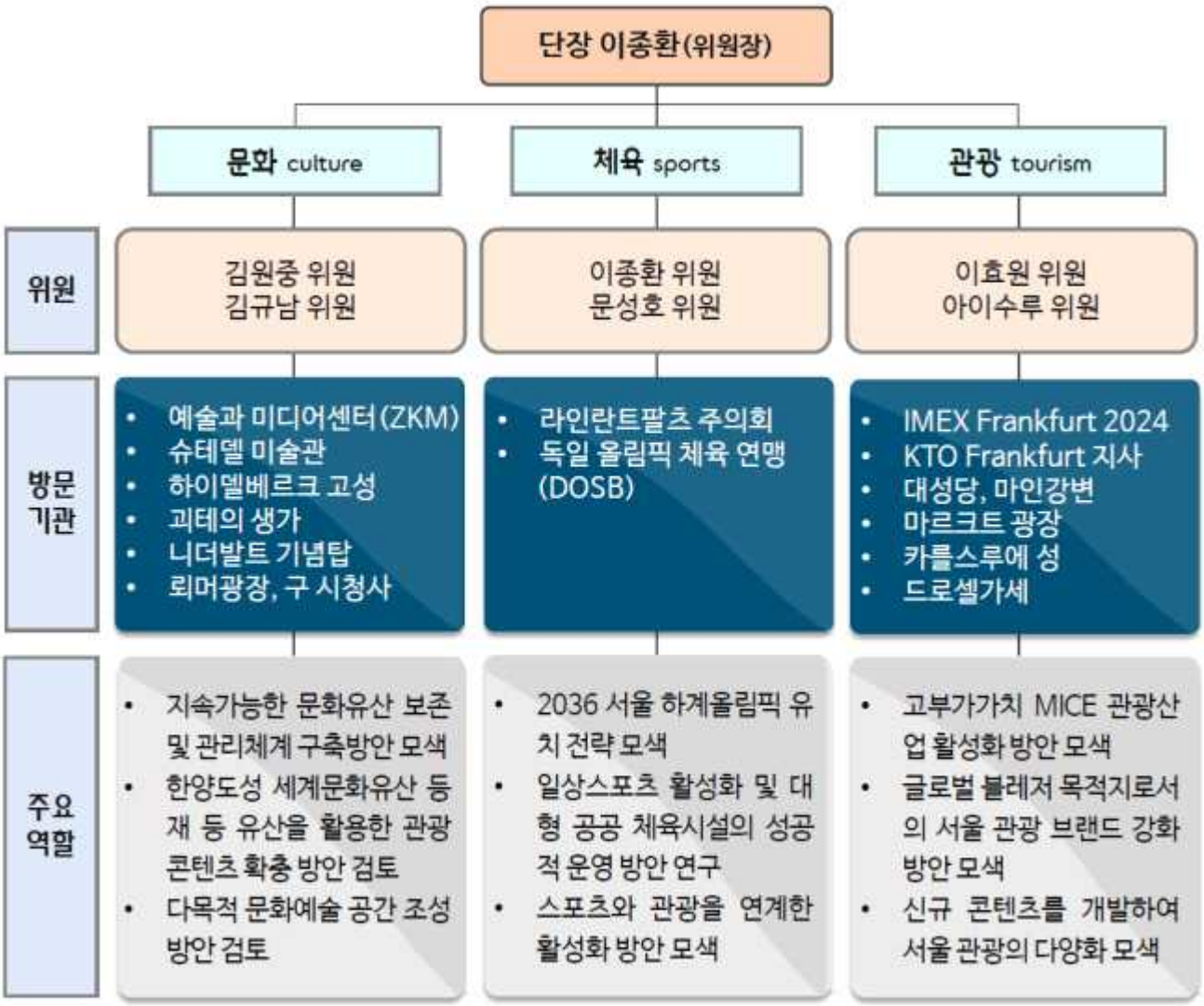
○ 단　　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

- 김원중 의원, 김규남 의원, 문성호 의원, 이효원 의원, 아이수루 의원

○ 수행직원 :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4명

- 오주석 팀장, 임창균 전문위원, 심형준 조사관, 정재윤 조사관

□ 역할 분담



□ 개인별 공무국외활동 업무분장

구분	직위	성명	업 무 내 용	분야
시의원 (6명)	위원장 (단장)	이종환	○ 공무국외활동 총괄	전체 총괄
	부위원장	김원중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모색 ○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서울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방안 검토 ○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 조성방안 검토	문화
	위 원	김규남		
	위 원	이종환	○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모색 ○ 일상스포츠 활성화 및 대형 공공 체육시설의 성공적 운영 방안 연구 ○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 모색	체육
	위 원	문성호		
	위 원	이효원	○ 고부가가치 MICE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글로벌 블레저 목적지로서의 서울 관광 브랜드 강화 및 신규 여행수요에 맞는 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 ○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울관광의 볼거리 및 즐길거리 다양화 모색	관광
	위 원	아이수루		
시의회 직원 (4명)	의사지원팀장	오주석	○ 의원수행 및 현지일정 총괄 ○ 예산 및 회계 관리	행정실무 총괄
	전문위원	임창균	○ 국외출장 정책 자료수집 총괄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자료수집 총괄 및 의전지원
	입법조사관	심형준	○ 방문도시 기관별 자료수집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자료수집 및 의전지원
	입법조사관	정재윤	○ 방문도시 기관별 자료수집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자료수집 및 의전지원

3 시찰 일정

일자	방문지(출발지)	방문기관
5/11(토) (제1일)	인천(KE945) ▶ 프랑크푸르트	· 인천공항 출발(10:50) · 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17:40)
5/12(일) (제2일)	프랑크푸르트	**<현장방문>** · 슈테델 미술관(10:00-12:00)
	하이델베르크	**<현장방문>** · 하이델베르크 고성(14:30-16:30)
5/13(월) (제3일)	마인츠	**<기관방문>** · 라인란트팔츠 주의회(09:30-12:00)
	뤼데스하임	**<현장방문>** · 니더발트 기념탑, 드로셀가세(14:00-16:30)
5/14(화) (제4일)	프랑크푸르트	**<초청방문>** · IMEX Frankfurt 2024 참관(09:00-13:00)
		<기관방문> ·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 (14:30-16:00)
		<현장방문> · 괴테의 생가(16:00-17:00)
5/15(수) (제5일)	프랑크푸르트	**<기관방문>**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09:30-11:30)
		<현장방문> · 뢰머광장, 구 시청사, 대성당, 마인강변 (14:00-16:00)
5/16(목) (제6일)	카를스루에	**<기관방문>** · 예술과 미디어센터(ZKM)(10:30-12:30)
5/17(금) (제7일)	프랑크푸르트 ▶ 인천(KE946)	·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5/16(목) 19:40) · 인천공항 도착(14:35)

※ **5/16(목) 당초 계획(오후 현장방문) 대비 일정 변경사유** : 공무국외여행심사 시 15일 일정이었으나 기관방문 일정이 급히 변경되어 최종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함. 오전 기관방문 후 공항까지의 이동 시간을 감안하여 현장방문 일정은 불가피하게 취소하였음.

4 기관방문 내용

기관방문 :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Landtag Rheinland-Pfalz)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독일 라인란트팔츠주(Land Rheinland-Pfalz)는 독일의 16개 연방주 중 하나로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19,846㎢의 면적에 약 4백만명이 거주하고 있음. 독일 와인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 면적의 42%가 숲으로 되어 있고 라치 호수를 비롯해 여러 화산 분화구 호수가 산재, 라인강이 흐르고 있음. 2,000여 년의 오랜 역사로 주 전역에 400여 개에 달하는 박물관과 많은 성과 유적이 위치함

○ 주요 특징

- 의원은 5년 단위로 101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의장단, 원로자문회의(운영위원회), 17개 전문위원회(상임위원회) 등의 합의제 기구가 있음
-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3개 분야의 정책을 1개의 상임위가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라인란트팔츠 주의회에서는 각각의 분야를 내무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가 나누어 관장하고 있음
- 홈페이지: https://landtag-rlp.de

□ 방문일시 : '24. 05. 13. (월) 09:30 ~ 12:00

□ 방문장소 : Platz d. Mainzer Republik 1, 55116 Mainz

□ 방문목적

○ 상호 기관 간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 방안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법령 제·개정 현황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함.

□ 면 담 자 : Kunz, Patrick(유럽과 하나의 세계 위원회 위원장)

□ 질의·답변

Q. 라인란트팔츠주의 노인 및 스포츠 정책은 어떠한가?

A. 스포츠와 관련된 정책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은퇴자들이 코치가 되어 어린 학생들 혹은 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가르치고 있음. 이는 노령자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임.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독일은 아직도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문화가 있어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Q. 한국은 심각한 노령화로 인해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여 의료비 등을 절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독일은 어떻게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A. 노인의 건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질병 등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필요함. 다만 노인들이 꾸준히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정책도 같이 시행하고 있음. 말씀하신 스포츠 활동도 활동에 흥미가 있어야 노인들이 참여할 것이므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음.

Q. 스포츠를 넘어서 문화에서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에 이런 정책이 있는지?

A. 스포츠 외에도 오케스트라 활동과 같이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둘레길 등 전국에 여러 중요 체험구역(세계문화유산 등)에서 노인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또한 카니발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협력과 다양한 성취를 통해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히 마인츠는 카니발이 유명하기에 노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현재 카니발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음.

Q. 카니발의 운영 주체는 어떠한지?

A. 당연히 시가 행사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있으며, 규모가 큰 만큼 주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기타 카니발을 위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행사는 핵심 주관 단체 아래 산하 단체들이 카니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금 등의 행사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음.

Q. 대규모 시민 행사에는 노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A. 노점을 위해선 사전에 신청이 필요하며, 시는 정확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고 판매 물품도 미리 정해야 함. 카니발 외에도 대규모 와인행사를 하고 있으며,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사전 신청이 필요함. 모든 시민들이 와인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와인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들을 구성하고 있음.

Q. 라인란트팔츠에는 7개의 세계유산이 있는데, 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대규모 행사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A. 우리 주는 매년 100억 원 정도를 관광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다만 일부 관광객에게 부담하게 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이런 재정 수입이 있다면 우리의 명소들을 개발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Q. 문화재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함. 특히 코블란츠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개바람.

A.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훼손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 케이블카를 행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후 케이블카 존치 필요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운영이 유지되고 있음. 또한 개발을 위해 지정 취소를 감수하기도 하였는데, 문화유산은 중요한 것으로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임.

Q. 시와 주에서의 문화재 심의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재 심의에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A. 코블란츠의 사례는 연방이나 주정부가 아닌 시가 결정한 사례이며, 마인츠의 경우 박물관 확장을 위해 시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되어 확장 정책이 종료된 사례가 있음.

□ 기관방문 사진

본회의장	정문 앞	기념품 교환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총 평 >

○ 라인란트팔츠주가 가진 서울시와의 유사점으로는 ▲ 우수한 지형 조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 급격한 노령화 사회 ▲ 역사 유적지의 보존과 개발 간 가치 대립 ▲ 축제를 통한 지역 간 교류와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라인란트팔츠주의 역할을 청취하였음.

< 개발과 보존의 조화>

○ 라인란트팔츠주는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동시에 문화재와 자연 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추진 중인 내용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시도하고 있는 관광세 등을 도입하여 관람객이 현지의 문화유산을 즐기되 재정적인 안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유산의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하고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는 최근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개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마땅한 조치라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노인체육 활성화 >

○ 2023년 통계 기준 OECD 국가 중 노령화 지수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이 5위와 6위를 차지하여 각국은 노인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라인란트팔츠주의 경우 은퇴자들이 코치가 되어 학생 또는 시민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령자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문화가 남아 있어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노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특화된 정책은 미흡한 편임.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해 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시니어 체육 지도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던바 라인란트팔츠주를 포함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서울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또한 서울시는 조부모가 육아조력자 역할을 할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라인란트팔츠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외에도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활동과 육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지역축제 활성화 >

❍ 독일은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국가로서 제도뿐 아니라 수백 년간 쌓아온 지방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가 존재함. 서울의 경우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한정되고 있으나, 라인란트팔츠주의 경우 인프라 구성에만 지원할 뿐 대부분 축제 참가자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축제 전 모금 행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일종의 기부문화 정착을 기반으로 형성된 운영 방식으로서 우리의 축제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가 필요함.

- 이는 지방자치의 발달과도 연관된 것으로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시민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기관방문 : IMEX Frankfurt 2024 초청 참관

《 행 사 개 요 》

○ 행사소개

- 행 사 명 : IMEX Frankfurt 2024
- 기　　간 : 2024. 5. 14.(화) ~ 5 .16.(목)
- 장　　소 : Messe Frankfurt
- 규　　모 : 약 10,000명 이상 예상
  - ·바이어 : 약 90개국(3,000명 이상)
  - ·전시자 : 약 2,900개사/ 미디어: 약 20개국
- 내　　용 : MICE 바이어 상담회 및 설명회를 통한 신규 수요 발굴, 주요 MICE 유관기관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뉴노멀 MICE 대비 최신 동향 파악이 가능한 MICE 전문 전시회

○ 주요활동

- IMEX Frankfurt는 매년 상반기 개최되는 유럽권 MICE 전시회로서, 분야별 회의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 및 어워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개최 장소인 Messe Frankfurt는 세계 2위 규모의 전시장으로 1909년 개관 후 꾸준히 확장하여 편리한 교통 인프라, 특색 있는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무역전시회와 국제 컨벤션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홈페이지: https://imex-frankfurt.com

□ 방문일시 : ’24. 05. 14. (화) 09:00 ~ 13:00

□ 방문장소 : Emser Brucke 2, 60326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 유럽 최대의 MICE 전문 전시회(IMEX Frankfurt 2024)에 서울 홍보관 운영 및 SMA(Seoul Mice Alliance) 공동 유치마케팅 추진으로 글로벌 최적의 MICE 개최지 서울의 위상 제고, MICE 산업의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2025 국제컨센션협회(ICCA) 총회 서울 유치 관련 정보 공유, 각종 서울 기반 국제회의(S-BIC) 유치를 위한 전략방안 모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IMEX Frankfurt에 참가함으로써 유치지 선정에 대한 서울시 전체의 높은 관심도를 알리고, ICCA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총회에 참가해 줄 것을 독려하는 등 IMEX Frankfurt 2024 서울 홍보관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서울시 참가자 및 회원사 격려

□ 면 담 자 :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 주요활동

○ 방문경위

- ‘IMEX Frankfurt’ 는 매년 독일과 미국에서 개최되는 마이스(MICE) 관광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Messe Frankfurt에서 개최되며,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에서 서울 홍보관을 운영함
- 2024년 박람회에서는 ‘2025 국제컨벤션협회(ICCA) 총회’ 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박람회 종료 약 3주 후 총회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임
- 따라서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은 이번 박람회가 총회 개최지 발표 전 마지막 공식행사인 만큼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로 초청함.

○ 주요 확인사항

- IMEX Frankfurt 2024 서울 홍보관 참가자 및 회원사 현황
- IMEX Frankfurt 2024 세계 참가국별 홍보관 규모 및 진행방법
- MICE 행사 개최를 위한 IMEX Frankfurt 2024 서울 홍보관 방문자수, 관심사 등 상담회/설명회 진행상황
- IMEX Frankfurt 2024 서울 홍보관 한류체험 이벤트 진행상황
- IMEX Frankfurt 2024 서울 라운지 및 안내데스크 운영 현황
  - 대형 스크린을 통한 서울 MICE 인프라 소개 등 서울 홍보 영상 상영 및 홍보물 배포 현황
  - IMEX Frankfurt 2024 외국 홍보관과 비교 시 부스 면적, 참가자수 등 서울 홍보관이 추후 개선해야 할 사항
- 서울 MICE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및 기타 지원사항

○ 활동내역

- 행사 전 서울관광재단 및 SMA 회원사 격려, 사전 간담회
-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아부다비 등 각국 주요 홍보관 대표 방문
- 국제컨벤션협회(ICCA) 홍보관 방문 및 2025년 총회 서울 개최 의지 피력
- 서울 홍보관 치맥 페스타 도우미 활동

□ 기관방문 사진

서울 홍보관	ICCA 홍보관	치맥 페스타

□ 방문내용 및 활용계획

< 프랑크푸르트 마이스 인프라 현황 >

○ ‘IMEX Frankfurt 2024’ 가 개최된 메세 프랑크푸르트(Messe Frankfurt)는 실내 전시면적만 약 39만㎡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50만㎡ 이상의 규모로 확장할 계획임.

< 서울시 마이스 인프라 현황 >

○ 서울시의 MICE 인프라 규모는 COEX 등을 포함해 6.5만㎡ 규모로 2022년에는 2030년까지 23만㎡ 규모로 확장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에도 규모면에 있어서는 독일 현지 인프라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서울시는 서남권(마곡), 도심권(서울역, 남산, 광화문 일대), 동남권(잠실~코엑스) 3개 거점별 ‘마이스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쇼핑, 문화, 교통, 관광 등 즐길거리와 편의시설을 집약함으로써 연계를 통한 마이스 관광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대외협력기금을 통해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간 예산 규모는 2.5억 원에 불과해 서울 권역 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 마이스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마이스 경쟁력 확보 방안 >

○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국제 마이스 시장이 약 2,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마이스 업계 선두주자인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서울시는 '2025 국제컨벤션협회(ICCA) 총회' 개최 시 약 11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마이스 시장 점유율 경쟁의 교두보로 삼고자 우리 위원회를 초청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세계 2위, 3위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국제 마이스 시장에 뛰어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관련 인프라 확보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보임.

○ 따라서 서울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 내 시설 간 혹은 타지역과의 밀접한 연계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K-Culture를 활용한 국제적 관심을 유인하되, 장기적으로 한국과 서울만의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기관방문 : 한국관광공사(KTO) 프랑크푸르트 지사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는 1974년부터 독일어를 사용하는 시장(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체코와 헝가리에 한국관광 홍보기능 수행하고 있음

○ 주요사업

- B2B/B2C 고객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
- 여행업계와 협력하여 한국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 촉진
- 국내 관광 사업자와 독일어 사용 시장 간 인터페이스 기능
- 관광 박람회・로드쇼・이벤트 참가, 언론홍보
- 홈페이지 : https://german.visitkorea.or.kr

□ 방문일시 : '24. 05. 14. (화) 14:30 ~ 16:00

□ 방문장소 : Stiftstraße 2, 60313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는 독일어권 국가들 중 유일한 현지 지사로서, 서울 관광에 대한 현지인들의 시각과 현지인들을 관광 수요화하기 위해 지사와 서울시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 관한 논의 등을 통해 현지인들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전략방안 모색

- 지난해 서울시는 3천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백만 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의미하는 3・3・7・7 관광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을 발표, 성공적인 세부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 필요

○ 현지의 관광수요 활성화 정책과 과잉관광 해결책에 대한 성공사례를 청취하여 서울시의 관광정책을 개선하는 데 반영

- 시의회는 과잉관광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의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 개정 사례를 공유하고 독일의 사례를 청취

□ 면 담 자 : 은유리 지사장, 정지인 부지사장

□ 질의·답변

Q. 서울시 관광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예산 부족에 시달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관 등의 방문도 필요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A. 외교부, 대사관과 달리 각국마다 지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선진적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음. 현재는 K-컬쳐를 통해 한국이 알려져 미래는 밝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관광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Q.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로 도시 사이를 연계하고 있고, 한국은 먹거리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인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무엇인지?

A. 유럽인이 알고 있는 한국의 도시는 사실상 제한적인 탓에 젊은층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실제 기대 이상으로 한국 관광 콘텐츠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며, 도심 근거리에서 등산, 역사, 전통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젊은이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Q. 상품 개발의 초점은 무엇이며, 한국에 대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 타국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A. 과거에는 단체상품이 시장에서 주를 이뤘으나 개별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 개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학생, 비지니스 등 계층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류에서 파생된 관심도가 높아져 한국 콘텐츠에서 노출된 장소를 여행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Q. 인프라의 차이가 마이스 관광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A.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싱가포르의 경우, 규모가 작고 집중돼 있는 반면에 우리는 개별 센터의 규모는 작지만 분산 배치되어 있어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일일이 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충분한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싱가포르에 비해 분산돼 있을 뿐 인프라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서비스 질에 있어서는 싱가포르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함. ICCA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싱가포르보다 더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꾸준한 지원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함.

Q. KTO는 많은 해외지사를 설립했는데, 서울관광재단의 해외지사 설립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A. 지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사실임. 실제 최근 설립된 멕시코 지사는 현지에서 한국 관광에 대한 정보 제공의 루트로 잘 활용하고 있음.

Q. 최근 서울시는 “SEOUL, MY SOUL” 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브랜드가 관광수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A. 당연히 브랜드는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다만 브랜드와 콘텐츠의 지속성이 확보돼야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활용한 관광수요 창출이 가능한데,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브랜드가 자주 변경돼 지속성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

□ 기관방문 사진

인사 및 기관소개

업무 브리핑

질의 응답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해외 및 독일 관광객 현황 >

○ 관광산업에 있어 인바운드 시장은 한 도시의 노력만으로는 수요창출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주요 거점에 32개의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독일인 입국자수는 약 12만명이었으며, 2023년은 13.2만명으로 증가한 수치를 나타냄. 다만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입국자수를 기록했던 독일은 K-컬처 및 K-콘텐츠의 영향으로 프랑스보다 적은 입국자수를 기록함.

< 해외 관광객 확대 방안 >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K-컬처 등이 대한민국 및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만의 고유 콘텐츠를 무기로써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K-콘텐츠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외 지방의 매력을 알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과 지방과의 연계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실례로 현지 젊은 계층은 K-콘텐츠를 통해 도심 근거리에서 등산, 역사, 전통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SNS 서비스의 발달로 개별적으로도 국외 관심 분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단체 관광상품에서 개별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비중이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콘텐츠 홍보와 더불어 개별 관심사가 실제 관광 체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서울시 마이스 관광 특징 >

○ 마이스 관광 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아시아권에서 선두에 위치한 싱가포르의 경우 작은 도시국가로서의 단점을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이스 관광의 집적효과를 누리고 있기는 하나 서울의 경우 분산 배치된 시설을 기타 관광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 간 경계, 서울지역과 지방 간 경계에 있어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 주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입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울관광재단 해외지사 설립 검토 >

○ 한국관광공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30개가 넘는 해외지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관광 관련 기관의 해외지사 설립 사례가 없어 서울관광재단 해외지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까지 논의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방문에서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는 해외지사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나 설립 이전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각 해외지사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데이터의 축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서울관광재단은 해외지사 설립에 필요성을 우리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오고 있으나 당위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의 교류 및 협의 내용과 더불어 지사 설립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임.

기관방문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 (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DOSB)은 비정부 기구로 독일 체육 연맹(DSB)과 독일 올림픽 위원회(NOK, 1895년 출범)가 2006년 5월 합병하여 창설되었으며, 약 2,700만 명의 회원과 87,000개의 스포츠 클럽으로 조직되어 있음

○ 주요활동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이 출범하기 이전 독일 체육 연맹(DSB)은 주 단위 체육 연맹과 종목별 체육 연맹으로 조직되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양성하는 단체였으며, 독일 올림픽위원회는 독일 도시에서의 올림픽 추진과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기관이었음
- 독일은 1916년,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1972년 뮌헨 올림픽 등 총 3번의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8년과 2022년 뮌헨, 2024년 함부르크, 2032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의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던 바,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s://www.dosb.de

□ 방문일시 : '24. 05. 15. (수) 09:30 ~ 11:30

□ 방문장소 : Otto-Fleck-Schneise 12, 60528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DOSB) 방문을 통해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의견 교환 및 다양한 전략 모색

- 서울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2018년부터 범정부적인 올림픽 유치 협력과 IOC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2036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
- 서울시의회는 2019년 2월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유치 동의안」 의결을 시작으로, 최근에도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등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32년 서울올림픽 추진 당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도 함께 경쟁하였던 바, 최근 독일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2036 서울올림픽 개최 추진을 위한 공조 가능성과 방향 모색

○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7개 종목)되어 진행되었는데, e스포츠 강국인 양국 간의 협력방안과 국제올림픽 종목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 교환

□ 면 담 자 : Katrin Grafarend 국제부 국장 외 2명

□ 질의·답변

Q. DOSB와 각 체육협회와의 지위 관계는?

A. DOSB는 각 체육협회의 최상위 조직으로서 1년에 한 번 전체 모임을 개최하여 각 종목별 체육협회의 운영현황 등을 대면 공유하고 있음.

Q. 재정 지원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지, 기본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A. 정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독립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 매년 4.6억 유로가 필요하지만 행정운영비를 포함하여 지원금 없이 자체 사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인력 또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음. 연방 차원의 지원도 없으며, 건물, 인건비 등 모두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만 일부 대기업이 후원하고 있으며, 연맹 전체 인원이 200명밖에 되지 않아 비교적 운영비가 많이 드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음. 참고로 독일 축구 협회의 구성원은 600명임.

Q. 자원봉사자의 연령대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A. 자원봉사자의 충원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면, 매번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 과거에 비해 노령화로 젊은층이 일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있어 젊은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 중임.

Q. 재정적인 부분 말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A. 이 역시 어려운 부분이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임. 연맹 일을 할 경우 다른 소득 업무를 대체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적게 일해도 연금을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등의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 중임.

Q. 독일은 한국보다 e스포츠의 시장 규모가 크지만, e스포츠를 스포츠가 아닌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첫째는 DOSB 회원이 되려면 조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독일 e스포츠계는 아직 구조적으로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Q. 지원금이 없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비인기 종목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가령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부족해 점차 쇠퇴하고 있는 상황임.

A.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비인기 종목은 지도자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럼에도 도전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엘리트 종목 육성과 전체 스포츠를 품는 정책 중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음.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자를 택해 독일은 순위에서 점차 밀리고 있는 상황이며, 그 가운데 지점을 찾아나가기 위해 계속 논의 중임. 다만 현재는 다양성이 더 중요하고 판단해 다양성 자체를 존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음.

Q. 아시아에서는 이미 국제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는데, 독일의 현황은 어떠한지?

A. 유럽에서도 일부 게스트 종목으로 채택된 적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머지않아 e스포츠도 DOSB 회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음. 앞선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이유는 스포츠를 어떻게 정의하냐의 문제인데, 가상 달리기나 활쏘기는 스포츠로 정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e스포츠의 분야가 너무나 다양해 범주화하기 어렵고, 전쟁 등을 묘사한 경우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고민되는 부분이 있음.

Q. e스포츠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DOSB도 이러한 점을 함께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A. 좋은 의견이며, 같은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임.

Q. 노인체육을 위한 별도 정책이 있는지?

A. 노인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기존 회원이 고령층이 되면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예컨대, 워킹풋볼과 같이 고령층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운영 중인데, 경쟁력보다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몸을 부딪히지 않고 무리 없는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어 인기가 늘고 있으며 회원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기관방문 사진

기관 브리핑

질의응답

단체사진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독일 체육단체 현황 및 특징 >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DOSB)은 서울시 체육회와 비교하여 민간조직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점이 있음.

- DOSB는 운영비를 포함한 일체의 재정 지원 없이 비정부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포츠를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현재의 운영방식을 고수해 오고 있음.
- 다만, 대기업의 후원을 통한 민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자원봉사자로서 근무하고 있음.

< 서울시 체육단체 현황 및 특징 >

○ 현재 서울시체육회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별도 법인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운영과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다만, DOSB는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대신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일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의 증원 또한 쉽지 않은 형편이며, 자원봉사에만 의존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아 현재는 대체소득과 연금수혜 등의 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협의 중임.

○ 또한, 비인기 종목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필수인데, DOSB는 엘리트 종목의 육성보다 전체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과 다양성에 비중을 높이 두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종목은 사실상 손을 놓게 되는 결과가 발생함.

○ 우리의 경우, 스포츠 활성화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했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여 체육회 또한 분할하여 운영한 적이 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현재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조직이 통합되었고, 각각의 내용은 통합된 조직 내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임.

○ 다만, 운영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종목의 다양성까지 고려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그 비용부담은 납세자인 시민 전체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각각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범시민적 담론을 반영한 입법적인 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독일 및 서울시 간 e스포츠 현황 비교 >

○ e스포츠와 관련하여 각 정부의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체육과 산업으로 각각 다르게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체적인 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즐기고 경쟁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임.

○ 서울시는 현재 경제정책실 창조산업과 소관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운용되고 있으며, e스포츠 활성화 사업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서울형 e스포츠 사업은 체육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등 e스포츠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e스포츠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인식되고 장애/비장애인 간 경쟁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세부사업까지 일원화된

조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장기적으로 토론 및 공청회를 통해 명확한 분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

❍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바 흥미가 노인체육의 중요 요소임이 확인되었음. DOSB의 사례와 같이 노인이 부담 없이 신체활동을 하되 재미가 동반된 종목을 개발·보급할 경우 노인의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유지와 사회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정책개발 혹은 유사사례 연구의 결과물을 반영하여 노인체육 종목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입법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꾸준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기관방문 : 독일 예술과 미디어센터(ZKM, Zentrum für Kunst und Medien)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ZKM(Zentrum für Kunst und Medien)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카를스루에 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시, 연구,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임.
- ZKM은 과학과 예술 그리고 미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는 것을 원칙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사업

- 전시 : ZKM의 약 15,000m² 규모의 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미디어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 행사 : 전시 이외에도 ZKM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문화 장르인 오페라, 무용 공연과 더불어 시민 문화 행사인 대중음악 콘서트, 영화 상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ZKM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ARD 라디오플레이데이(ARD Radio Play Days)가 있음.
- 연구 : ZKM은 새로운 과학 기술과 미디어 기술을 예술과 융합하기 위하여 이들 기술이 어떻게 예술과 융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음. 현재 주요 연구로는 인공지능, AR 및 VR 등이 있음.
- 컬렉션 수집과 아카이브 : 미디어아트 센터로 시작한 기관인 만큼 이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시대별 비디오, 오디오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서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아카이빙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 외 ZKM의 주요 사항을 간행물로 정리·발간하는 등 출판 사업과 ZKM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도 추진한 적 있음.
- 홈페이지 : https://zkm.de/

○ 주요시설

- 미디어 박물관, 현대 미술관, 시각 미디어 연구소, 음악 및 음향 연구소 등이 전시 시설과 함께 위치하고 있음.

□ 방문일시 : ’24. 05. 16. (목) 10:30 ~ 12:30

□ 방문장소 : Lorenzstraße 19, 76135 Karlsruhe

□ 방문목적

○ 버려진 공간을 예술문화 시설로 재건축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ZKM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문화공간 조성에 활용

- 탄약공장의 도시 내 예술공간으로의 탈바꿈을 통해 주민들에게 큰 정서적 위안과 다양한 종합예술 작품 제작·전시 공간 기능

- ZKM은 미디어 종합시설로서, 미술·음악·조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한 공간에서 작품을 제작·공유할 수 있으며, 교육생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ZKM에는 예술디자인 대학교와 시립 미술 갤러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한 공간 내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 체험 가능

- 서울 문화시설 건립 시에도 하나의 목적이 아닌 예술,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기능 시설 건립 검토

□ 면 담 자 : 알리스테어 허드슨(Alistair Hudson) 최고경영자,
헬가 헛캄프(Helga Huskamp) 최고운영자,
필립 지글러(Philipp Ziegler) 수석 큐레이터 등

□ 질의·답변

Q. 현재 ZKM의 운영 방향과 기관의 재정 사항은?

A. 현재 ZKM은 1인 대표체제로 되어 있으며, 기관 재정의 100%(주:50%, 시: 50%)는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되고 있음. 주와 시에서 우리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 즉 인건비, 관리비, 그 밖의 운영비로 한정되어 있음. 여기에는 우리의 메인 사업인 전시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특별주제 전시,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전시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우리는 자체 수입원으로 국가의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혹은 EU의 특별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여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음.

Q. ZKM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폴드엑스 사업의 협력관계로 있다고 들었음. 앞으로 ZKM과 서울문화재단이 더 많은 협력을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 기관을 이끄는 리더 간의 교류에 있어선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가?

A. 우리는 2022년부터 서울문화재단과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와 한국의 물리적 거리와 시차가 우리의 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함. 그러기에 기회가 되어 많은 대면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양 기관의 협력이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

A.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표와 서울문화재단의 대표 간의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를 위해선 대면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한국의 경우 우리와는 다르게 4~5년마다 기관의 장이 바뀌곤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전 대표와 쌓아온 인적 관계가 소멸하여 새로운 대표와는 바닥부터 다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음.

Q. ZKM 대표의 임기는?

A. 30여 년 전 설립된 ZKM은 현재까지 3명의 대표가 있었음. 대표의 처음 임기는 5년이며, 그 노력과 결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특별하게도 제2대 대표 페터 바이벨의 경우 ZKM에서 20년 동안 재직하였음. 이렇게 제2대 대표인 페터 바이벨씨가 오랫동안 ZKM의 대표로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의 ZKM을 만드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기 때문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대표가 ZKM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발전시킨다면 제2대 대표처럼 장기간 ZKM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Q.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있는 것을 보았음. 현재 서울시 소관 미술관인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백남준 작가를 기리는 공간을 운영 중인데, 백남준 작가의 후손과의 저작권 문제로 새로운 전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ZKM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이 모여 작품을 만들고 이를 전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작가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혹은 소유권과 그리고 사용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편적인 법률의 사항만 말씀드릴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음. 기본적으로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면 그 소유는 작가에게 있으며 작가는 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 즉 사용권은 작가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기에 작가의 허락이 없다면 그 작품을 활용할 수는 없음. 현재 EU는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그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누구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이는 EU에만 한정된 사항이며, 다른 국가는 특히 한국에 상황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음. ZKM도 여러 국적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거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제작을 진행하려면 작가의 동의가 사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함.

Q. 본인이 미디어아트를 제작한 후 이를 ZKM이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저의 작품을 ZKM이 이를 활용하는 것에는 어떤 법적 혹은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

A. 미디어아트 분야도 다른 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사용권이 적용됨. 그러기에 창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어떠한 재제작 혹은 2차 창작은 불가능함.

Q. ZKM 설립 취지와 운영형태를 봤을 때 전 세계 어떤 기관보다 미디어아트의 선구자였다고 생각하는데,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라는 전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비엔날렌지 비평한다면?

A.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아트 분야의 전시 중에 영향력이 있다고는 알고는 있음. 다만 이 분야에 대하여 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미디어아트는 다른 장르와 비교해서 작품 판매가 어려운 특성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다른 장르보다 미디어아트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의 미디어아트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선 비엔날레처럼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전시보다는 매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에 있는 미디어아트 작가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A. 또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비디오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는 미디어아트 분야의 한 부분이며, 이를 넘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미디어아트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함. 현재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며 이를 접목하여 많은 예술가가 새로운 예술을 생산하고 있음.

Q. ZKM은 지난 30년간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전시를 선보여 주셨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전시는 무엇인지?

A. 가장 인상적인 전시는 우리의 공간에 인공구름을 전시했던 것임. 인공구름을 만들고 관람객들이 그 구름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었던 전시를 지금까지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음.

A. 이 구름은 기술자들과 예술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음. 우리가 인공구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는 우리의 직원들이 하나의 예술가라는 직업군만 있기보다는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종의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임.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ZKM 아래 있는 것은 처음에 기관소개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을 예술에 접목하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임.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AI 기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박물관들처럼 예술을 공부한 사람들만 채용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예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필요하기에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들도 5명이 있으며 이 중의 3명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가임. 또한 ZKM의 연구원들은 ZKM 내부에서 진행하는 연구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ZKM의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해 다양한 외부 기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그 연구 결과를 그냥 연구의 결과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예술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Q. ZKM의 조언으로 카를수르에 궁전을 파사드삼아 펼펴지는 궁전라이트쇼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났는데, 현재 서울에서도 궁전라이트쇼와 같은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서울의 사업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언을 주시자면?

A. 슐로스리히츠필레 축제는 9년전 우리의 제안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ZKM이 아닌 카를수르에시에서 축제를 조직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음. 빛과 조명을 활용한 축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선 이들 장비 중 가장 최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업이 필요함. 그 이유는 광학 장비와 최신예 기술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비싸기 때문임. 또한 빛과 조명을 활용한 축제는 많은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예술성 있는 작품을 보여주기보다는 그저 화려한 조명을 보여주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임. 그러기에 서울이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 LG와 같은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많은 예술가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예술성을 잘 융합시켜야 할 것임. 슐로스리히츠필레가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것에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빛과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

Q. 현재 ZKM에는 해당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ZKM은 지원에 있어 해당 예술 분야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만드는 예술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A. 답은 하나일 것임. 예술에서의 기술은 작품이며 그것은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짐. 그러기에 우리는 해당 분야보다는 작가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특히 한국 기업 중에는 현대라는 기업이 예술가들을 위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기관방문 사진

기념품 교환	단체사진	회의실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문화역량이 중심이 되는 도시 >

○ ZKM은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AEC)와 일본 동경의 인터 커뮤니케이션 센터(ICC)와 더불어 세계 3대 미디어 아트 센터로 손꼽히고 있음.

○ 세계 최대의 온라인 미술 데이터베이스 회사 ArtFacts.Net에서는 ZKM을 뉴욕 현대 미술관, 베네치아 비엔날레, 파리 퐁피두 센터에 이어 4위의 박물관으로 선정한 바 있음.

○ ZKM의 제안으로 시작된 카를스루에 궁전을 활용한 '궁전 라이트 쇼' (Schlosslichtspiele Karlsruhe)는 현재 전 세계 많은 도시에 미디어파사드라는 이름으로 각양각색의 조명과 빛으로 선보이고 있는 축제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카를스루에 시가 '미디어아트' 분야로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된 배경에는 30여 년 전 세계 최초 '미디어아트' 센터로 설립된 ZKM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 축제 개선방향 >

○ 현재 서울시의 각종 축제는 문화본부 소관으로 그 기획을 공무원의 주도로 계획되고 있음. 서울시 산하의 문화·예술기관들보다 문화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울시 축제를 기획·조직하기에 시민들이 바라는 바와는 달리 혹은 이름만 거창하고 내실이 부족한 축제가 반복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 ZKM의 사례에서 서울시 산하의 문화·예술기관들의 본인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축제를 역제안하는 등 축제 기획부터 상향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탁상에서 만드는 축제가 아닌 현장이 제안하여, 문화적 역량이 풍부하고, 시민이 더욱 빠져들 수 있는 축제를 조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물음을 던지는 미디어아트 >

○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현대미술 중심의 전시를 진행함과 동시에 현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미디어아트를 조망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진행하고 있음.

○ 미디어아트 분야의 선구자인 ZKM의 조언을 참고해봤을 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최된 비엔날레라는 역사에 비해 국제적인 유명세나 인지도는 많이 부족한건 아닌지 살펴봐야할 지점이라고 생각함.

○ 특히 국내 비엔날레 분야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세계 3대 미술 비엔날레인 베니스비엔날레에 병행전시를 하는 등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또한 미디어아트가 단순히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을 봤을 때 서울시립미술관이 개최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역시 미디어매체 예술보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선도적인 예술을 선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5 주요 시찰내용

현장방문 : 슈테델 미술관 (Städel Museum)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슈테델 미술관(Städel Museum) / 유료전시

○ 개 요

- 슈테델 미술관은 1817년 프랑크푸르트의 은행가이자 예술 후원가인 요한 프리드리히 슈테델(Johann Friedrich Städel)의 유언과 남긴 유산에 따라 설립되었음.
- 미술관에는 회화 3,100여점, 조각 660여점, 사진 4,600여점, 드로잉 및 판화 100,000여점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해 35여만명의 사람들이 미술관을 방문하고 있음.
- 미술관은 1878년 완공되었으며, 제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일부가 파괴되었다가 독일의 건축가 요하네스 크란(Johannes Krahn)의 설계에 따라 1966년 재건되었고, 현대 미술 컬렉션이 새롭게 수집되면서 전시관을 확장하였음.
- 미술관은 뮤제움스우퍼(Museumsufer)라고 불리우는 마인강변의 박물관·미술관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s://www.staedelmuseum.de/

□ 방문일시 : '24. 05. 12. (일) 10:00 ~ 12:00

□ 방문주소 : Schaumainkai 63, 60596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 서울시는 청계천 박물관과 북서울 미술관 등 분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명소와 교육 등의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조성되는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기능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 혹은 역사와 미술의 세부 장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주요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슈테델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거리를 시찰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건립하려는 박물관·미술관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문화관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의 특색 있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지원 방안 및 시설 활성화,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 방안 등 고찰.

□ 현장방문 사진

현장입구 단체사진	주요작품 관람	현장옥상 전망포인트
야외 전시장	특별전시 관람	시정 적용 방안 의견교환

□ 방문내용

< 자체 콘텐츠 중심 박물관·미술관 구축 >

○ 서울시는 2020년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강원도 횡성군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금천구에 서서울미술관, 도봉구에 서울사진미술관, 서초동에 (가칭)보이는 수장고를 건립하고 있음.

○ 다만 현재 건립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등이 서울시의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건립이 예정보다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관심이 집중되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또한 서울시는 박물관·미술관의 핵심 콘텐츠인 소장품 확대를 위해 기금 조례를 제안하고 설치하였으나, 기금 운용액은 기존 계획의 10분의 1 정도로 서울시 소관 5개의 박물관·미술관이 의미있는 소장품을 구입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슈테델 미술관은 미술관 재단을 설립함과 동시에 미술관이 개관된 것이 아닌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이 완료된 이후 미술관이 보유한 컬렉션에 부합하는 전시장 및 외관을 구성한 후 건립을 진행한 바 있음.

○ 결국 선 착공, 후 소장품 수집을 하고 있는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에 슈테델 미술관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어떠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판단됨.

○ 특히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세계 5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계 문화도시와는 차별화된 문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그러므로 서울시는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성장에 집중하기 보다는 각 시설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장방문 : 하이델베르크 고성 (Städel Museum)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하이델베르크 고성(Heidelberg Castle) / 유료입장

○ 개 요

-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13세기 초 건축되었으며, 초기에는 방어를 위한 성으로 건립되었으나, 점차 확장을 거듭하면서 팔라티노 백작의 거주지로 사용되게 되었음.
- 고성은 건축 이후 외부요인으로 인한 유실과 재건 그리고 확장으로 독일의 다양한 건축양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연간 300여만명의 관광객이 고성을 방문하고 있음.
- 현재 주로 관광객이 고성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도보와 케이블카가 있음.
- 고성에는 왕정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대규모 와인저장소, 약학박물관 등이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schloss-heidelberg.de/

□ 방문일시 : '24. 05. 12. (일) 14:30 ~ 16:30

□ 방문장소 : Schlosshof 1, 69117 Heidelberg

□ 방문목적

○ 성과 성을 둘러싼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서울의 대표 성곽 유산인 한양도성과 그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한양도성이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산가치를 지지받을 수 있는 근거 및 홍보방안 등 고찰할 수 있음.

○ 하이델베르크 고성의 보존·관리상태 탐방을 통해 한양도성의 보수·정비를 통한 시민 접근성 확대 및 안전 확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한양도성 원형 보존 및 유산가치 보호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수·정비 방법 등을 비교분석 하여, 한양도성의 지속 가능한 탐방 인프라 조성방안 도출

□ 현장방문 사진

단체사진	내부 현장 탐방	하이델베르크 고성 전경
약학박물관 탐방	현장 탐방	단체사진

□ 방문내용

< '성곽도시 서울'를 위한 타산지석 >

○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17세기 팔라티노 왕위 계승 전쟁으로 인하여 중요 탑과 성벽이 파괴되었음. 이후 19세기 볼프강 뮐러(Wolfgang Müller)와 같은 문화인들에 의해 고성을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전할 것인지 논쟁이 있었음.

○ 이 논쟁의 결론은 역사적 건축물이 그 역사를 그대로 알릴 수 있도록 현행과 동일하게 보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이 기조는 현재까지도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서울시는 '한양의 수도성곽'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하여 유산의 가치를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한 탐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 ‘한양의 수도성곽’인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서울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미 기존의 성곽유산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많은 도시들과 더불어 ‘성곽도시 서울’로서 그 위상이 승격될 것임.

○ 유네스코에서는 유산의 원형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확실한 원형보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복원 대신 보존을 선택한 하이델베르크 고성 사례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의 장을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양도성’을 보존·유지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선 문화재청의 등재신청 대상이 되어 등재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유네스코에 제출되야 하며, 이후 서면심사와 실사를 거치게 되어 있음.

○ 특히 실사 단계에서 유네스코는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ICOMOS) 등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국내 전문가와 함께 심사를 수행하며 동시에 문화유산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들과 면담도 진행되기에 ‘한양도성’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불투명해질 것임.

○ ‘한양도성’은 이미 2017년 자문기구 심사결과 ‘등재불가’권고를 받아 등재 철회를 결정한 바 있으므로 재등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한양도성’이 이번에는 한번에 등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임.

현장방문 : 라인 뤼데샤임 일대

《 현 장 개 요 》

○ 방문지정보
- 방문지명: 드로셀가세, 니더발트 기념탑
- 뤼데샤임 면적 51㎢/인구 1만 명

○ 개 요
- 라인강의 진주라 불리는 라인강변의 도시 뤼데샤임(Rudesheim am Rhein)은 아름다운 경관과 넓은 포도밭, 유람선 관광으로 유명함
-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목으로 손꼽히는 드로셀가세(Die Drosselgasse, 일명 티티새골목)에는 돼지고기, 감자, 소시지가 주메뉴인 레스토랑(노천카페)과 와인숍, 호텔, 박물관 등 주요 관광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밤늦도록 참새처럼 재잘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참새골목이란 별명으로 더 알려짐
- 곤돌라를 타고 전망대인 니더발트까지 올라가 독일의 통일을 기념하여 건립된 니더발트 기념탑(게르만 여신상)에서 라인강을 조망할 수 있음

□ 방문일시 : ’24. 05. 13. (월) 14:00 ~ 16:30

□ 방문주소 : 65385 Rudesheim am Rhein

□ 방문목적

○ 서울시는 지역의 희소성 있는 생활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 핫플 및 골목길 명소 발굴·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드로셀가세의 골목 사례를 통해 서울시 핫플레이스 및 골목길의 발전·홍보방안 등 벤치마킹

○ 인구 1만 명, 면적 51㎢에 불과한 소도시 뤼데샤임에 연간 3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실거주지와 근접한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대응방안 벤치마킹

□ 현장방문 사진

드로셀가세1	뤼데샤임 포도밭 전경	뤼데샤임 일대 라인강 전경
드로셀가세2	뤼데샤임 일대 라인강변 골목	니더발트 기념탑

□ 방문내용

< 뤼데샤임의 골목과 역사문화 >

○ 뤼데샤임은 라인 강가의 포도밭과 고성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소도시로, 드로셀가세라는 이름의 골목과 프랑스와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니더발트 기념비 등이 유명함.

- 드로셀가세(Drossel: 지빠귀 + Gasse: 골목)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골목 중 하나이며, 길이 144미터 폭 2미터의 좁은 골목 양편에 레스토랑, 맥주집, 와인전문점, 기념품점 등이 자리잡고 있음.
- 니더발트 기념비는 1871년 프로이센 시절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일제국을 선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전체 높이는 38m에 이르고 중량은 75톤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함.

○ 독일의 전통 골목과 통일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두 장소는 아름다운 경관, 역사 탐방과 더불어 지역 특산물인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맛볼 수 있어 근거리에서 눈과 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명소임.

< 서울의 골목 관광 >

○ 서울의 유명 골목으로는 최근 젊은이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경리단길, 성수동 카페거리, 연트럴파크, 망리단길, 익선동, 합정동, 이화벽화마을 등 많은 곳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나, 세대를 아울러 관광객이 찾는 드로셀가세와는 차이가 있음.

○ 서울 시내 골목은 젠트리피케이션과 유행의 빠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발전과 동시에 쇠퇴를 우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젊은 세대만의 관심만으로는 골목 관광이 꾸준히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외형적으로 과거 골목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관광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골목마다의 고유 콘텐츠와 스토리 개발이 필요하며, 전통과 향수에 목말라하는 세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경관을 활용한 관광명소 조성 >

○ 한편 니더발트 기념비는 뤼데샤임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해 독일의 주요 역사와 경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곳곳에 아름드리 나무와 잔디밭이 즐비하여 관광명소인 동시에 찾는 이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울 역시 한강과 명산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경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장소를 가지고 있음. 다만, 언덕에 위치한 명소는 대부분 쉼과 머무름을 위한 공간보다는 이동길, 트레킹코스로 활용되거나 카페로 조성돼 비용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장소는 많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골목, 거리는 상권과 더불어 개발하되 쉴 수 있는 곳은 마음껏 쉬었다 갈 수 있는 서울의 명소를 조성한다면 머무름과 쉼의 미학을 원하는 관광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장방문 : 괴테의 생가 (Goethe House)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괴테의 생가

○ **개 요**

- 독일의 철학자 요한 볼프강 괴테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집필한 곳으로도 유명하며, 부르주아 로코코 건축양식과 18세기 가정집의 모습을 볼 수 있음
- 비영리 연구기관 Freie Deutsches Hochstift에서 운영 중이며, 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s://frankfurter-goethe-haus.de

□ 방문일시 : '24. 05. 14. (화) 16:00 ~ 17:00

□ 방문장소 : Grosser Hirschgraben 23-25, 60311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 서울시는 백인제 가옥, 박정희 가옥, 최규하 가옥과 같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택 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관광 자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에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택 유산(단일 건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함.

□ 현장방문 사진

정문 앞 설명

프런트

실내 설명

층간 계단	실내 작품 전시	박물관

□ 방문내용

< 괴테의 생가 연혁 및 현황 >

○ 1749년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이며, 4층 높이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저택임. 괴테의 아버지는 황실 고위 관려였고 어머니는 시장의 딸이었던 덕택에 당시 유복한 중산층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임.

○ 현재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붕괴되어 전후에 재건한 것이지만 당시의 모습이 잘 보존되도록 복원되었음. 전쟁 중 소실을 피하기 위해 가구와 용품은 미리 옮겨두었던 덕분에 과거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음.

○ 프런트를 지나 생가 입구에는 각국의 언어로 방의 위치와 설명을 담은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객은 개별적으로 이를 지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방에 대한 대강의 이해를 돕고 있음.

- 우리 위원회 방문 직후에는 기존 독일어와 영어로만 제공됐던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한국어로도 제공하고 있어 한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괴테의 생가는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의 삶에 대한 호기심,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저택, 1700년대 중산층의 삶, 당시대 원형을 고스란히 보존된 가구 등 괴테라는 인물에 대한 매력을 바탕으로 관광객에게 매력이 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

< 서울시 가옥유적지 활용 방안 >

❍ 이에 비해 서울시의 백인제 가옥, 박정희 가옥, 최규하 가옥 등은 역사적 인물이 머물렀던 가옥을 박물관화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인물들은 국외 관광객에게는 큰 매력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한옥 또는 현대사적인 건축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사실상 박물사적 가치 외 관광상품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가옥들은 관광명소화하기 보다는 박물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집중하고,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되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할 만한 콘텐츠 요소를 개발·결합하여 해당 가옥들만의 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현장방문 : 뢰머광장 일대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뢰머광장, 구 시청사, 대성당, 마인강변

○ 개 요

- 뢰머광장은 9세기부터 프랑크푸르트 국제박람회가 열린 상징적인 장소이며, 1980년대 현대건축가인 반게르트와 얀센이 150미터 인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을 잇는 쉬른 미술관을 건설한 바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역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사진미술관, 괴테생가, 만화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일본미술관 등 박물관·미술관이 인근에 포진해 있어 프랑크푸르트의 역사·예술문화를 집중해 관찰할 수 있는 지역임
- 성 바르톨로메오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은 13세기에 완공되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대관식이 거행된 장소이며, 14세기 만들어진 '천국의 문' 스테인드글라스는 프랑크푸르트 대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 프랑크푸르트시를 관통하는 마인강에는 아이젤너 다리가 있는데, 뢰머광장 남쪽에 위치한 마인강의 대표적인 철제 보행교로 마인강변을 감상할 수 있고, 1340년대부터 시작된 마인강 페스티벌(Mainfest, 2024.8.2.~8.5.)이 열리는 중심지이며, 최근 다리 주변의 카페거리가 형성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방문일시 : '24. 05. 15. (수) 14:00 ~ 16:00

□ 방문장소 : Römerberg 26, 60311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 뢰머광장, 구 시청사, 프랑크푸르트 대성당 시찰을 통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마켓, 서울 빛초롱 축제, 책 읽는 서울광장 등 광장의 활용을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에 기여

○ 방문기간 중 프랑크푸르트 10대 축제 중 하나인 오페라 광장 페스티벌을 직접 경험하고, 음악·미디어파사드·빛·음식 등이 주요 콘텐츠인 서울시의 노들섬 서울재즈페스타(10월), 서울윈터페스타(12월), 서울미식

주간(11월) 및 각종 축제 등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발굴

○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는 마인강변의 문화·관광자원을 관찰하고, 서울시장 역점사업인 서울관광 3377 및 한강르네상스 2.0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 발굴

□ 현장방문 사진

뢰머광장1	뢰머광장2	구 시청사 외관
뢰머광장 행위예술가	대성당 외관	대성당 실내

□ 방문내용

< 뢰머광장 등 연혁 및 현황 >

○ 뢰머광장은 9세기부터 축제, 집회가 열려온 독일의 대표 광장으로서 역사적인 명소이며, 대성당을 비롯해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이 건립되면서 역사·예술문화를 한눈에 탐방할 수 있는 장소임.

○ 특히 대성당에서는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시청사 건물에서는 축하연을 열었을 정도로 상징적인 장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차범근 감독이 선수 시절 프랑크푸르트 축구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던 장소로 유명함.

○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의 축제와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이곳 광장을 무조건 찾을 정도로 시민과 관광수요층에 깊이 각인돼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 광장 현황 및 특징 >

○ 서울시의 대표 광장이라고 하면 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광장은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며 매년 시즌별로 광장마켓, 빛초롱축제, 책읽는 서울광장 등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 그러나 뢰머광장의 경우와는 달리 개별 행사가 광장별로 고유 콘텐츠로 자리잡지 못함에 따라 별도 홍보 수단의 노출 없이는 시민들이 이동 통로 이외의 목적으로 광장을 찾지 않고 있음.

- 경복궁,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상과 같이 광화문의 상징적인 시설과 구조물이 존재하기는 하나, 넓은 거리 형태의 광장 구조상 머무르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광화문만의 고유 콘텐츠와 결합된 브랜딩이 필요함.

○ 시청광장의 경우 잔디밭 광장에 시즌별 행사를 개최되고 있으나 사업의 형태에 따라 광장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돼 이용이 어려운 기간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한편 겨울철 광장 스케이트와 같이 오랜 기간 반복적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도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 전역의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축제 및 행사를 시즌별로 반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관광 콘텐츠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의원별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이종환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라인란트팔츠주의회, IMEX FRANKFURT 2024, 한국관광공사(KTO) 프랑크프루트지사, 독일 올림픽 연맹, 독일 예술과 미디어센터)	
활동 목적		
활동 기간	2024. 5. 11.(토) ~ 5. 27.(금) (5박 7일)	
활동자	성 명	이 종 환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견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간 선택과 집중, 체육단체 운영재원 마련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체육단체로 과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2개 단체가 존속해 오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2016년 통합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체육회로 각각 통합·운영되고 있음.

○ 또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각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 관 주도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지원 예산의 규모에 따라 성과 측정이 용이한 전문체육 단체 간 경쟁구조에 예산 쏠림 현상이 발생함.

○ 독일의 최상위 체육 조직인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DOSB)은 비예산 조직으로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원봉사자 중심의 인력을 통해 다양성에 초점을 둔 체육정책을 펼치고 있음.

○ 사회 연령층 구성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DOSB의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체육단체 운영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 구조 변화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참고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체육 활성화의 시급성 및 서울형 모델 연구 필요**

○ 2022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비)은 17.4%로 독일 22.1%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증가 속도가 빨라 머지않아 추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오랜 기간 먼저 경험한 독일의 노인체육정책을 참고하여 서울형 노인체육 모델을 개발·보급·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한 상황임.

○ 예컨대, 독일은 경쟁보다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워킹풋볼이라는 종목을 개발·보급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회원의 증가를 경험한 바 있음.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김원중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라인란트팔츠주의회, IMEX FRANKFURT 2024, 한국관광공사(KTO) 프랑크프루트지사, 독일 올림픽 연맹, 독일 예술과 미디어센터)	
활동 목적	MICE 선도 및 국제적 관광, 스포츠 도시 SEOUL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활동 기간	2024.5.11.(토) ~ 5.17.(금)(5박 7일)	
활동자	성 명	김 원 중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견

□ **세계적 매력 도시 서울시를 위한 문화 콘텐츠 확보 방안**

○ 현재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을 글로벌 문화도시 Top5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서울시 산하 문화기관인 서울문화재단도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 하기 좋은 도시, 예술 누리기 좋은 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였음.

○ 정량적인 목표는 시장조사업체들을 통해 매번 수치화되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디에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달성한 후 시정의 방향이나 기관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도 제시하지 못하며, 서울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수밖에는 없음.

○ 독일 예술과 미디어센터(이하 ZKM)의 경우 1989년 설립 당시 기관의 사명인 '예술과 미디어 그리고 미래 기술을 결합하는 기관'을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카를수르에시는 미디어아트에 있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바 있음.

○ 또한 설립 이후 30년간 기관의 대표가 3번만 바뀌었다는 점에서 서울시 소관의 문화기관들의 자체적인 문화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함. 현재 서울시 문화기관들을 이끄는 대표들의 임기는 최초 2년 혹은 3년 정도로 최소 5년을 보장하고 있는 ZKM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최초 2년 계약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조례로 그 임기를 정하는바 기관의 장이 주인의식과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시간에 구애 없이 기관을 혁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기가 얼마인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판단됨.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김규남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라인란트팔츠주의회, IMEX FRANKFURT 2024, 한국관광공사(KTO) 프랑크프루트지사, 독일 올림픽 연맹, 독일 예술과 미디어센터)	
활동 목적	MICE 선도 및 국제적 관광, 스포츠 도시 SEOUL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활동 기간	2024.5.11.(토) ~ 5.17.(금)(5박 7일)	
활동자	성 명	김 규 남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견

□ **미래와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도시**

○ 라인란트주의 코블렌츠시의 경우 독일의 주요한 강인 라인강이 도시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특히 뤼데스하임에서 코블렌츠까지의 구간은 "라인강 중류 계곡 상류의 문화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002년에 등록된 바 있음.

○ 코블렌츠시는 2011년 세계 3대 정원박람회로 불리는 독일의 Bundesgartenschau (Federal Garden Show) 개최를 앞두고 박람회장과 도시를 연결하는 메인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라인강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였음.

○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 유네스코는 설치되는 곤돌라가 "라인강 중류 계곡 상류의 문화경관"을 해치지 않고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합의하였음. 그럼에도 코블렌츠시는 주민 90%가 운영 지속에 동의한 것을 바탕으로 유네스코를 설득하여 케이블카의 잔존 수명기간인 2026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서울시 풍납동을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풍납토성 보수·정비를 비롯하여 국제 학술회의 개최,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풍납토성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제한 해제, 거래가를 반영한 토지보상 같은 실질적인 정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풍납토성은 매입완료된 1권역을 포함하여 왕궁추정지이자 문화유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3구역과 문화유산이 유실됐을 것으로 보는 4·5·6 권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

○ 발굴을 통해 한성백제 역사를 새롭게 파악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인접국들이 고대 역사를 둘러싼 논쟁을 진화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 분명하나 이미 개발로 인해 역사적 가치가 소멸한 지역까지 문화유산 권역으로 묶여 시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음.

○ 주민 의견 중심의 자연유산과 개발을 함께 공존시킨 코블렌츠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와 활용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1순위로 하지만 문화유산의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문화지표층을 보존하면서도 시행할 수 있는 개발 사항들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풍납토성의 미래가치 창출과 인근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고 있음.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문성호 의원)

활동 국가 (기관)	도이칠란트 (프랑크푸르트, 슈테델미술관, 하이델베르크 고성,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IMEX 프랑크푸르트,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지사,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 ZKM 등)
활동 목적	해외 주요 국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비교시찰을 통해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수 정책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서울 대표 관광콘텐츠 발굴 활성화 및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4년 5월 11일 (토) ~ 5월 17일 (토)

활동자	**성 명**	문 성 호 문성호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

검 토 의 견

1.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의하라

1) 견문록

: 도이칠란트 프랑크푸르트에서만 견문한 것이기에 전체를 논할 수는 없기에 프랑크푸르트 도심에서 본 자전거 전용도로와 이에 대한 문화만을 견문하고 논하고자 함.

: 도이칠란트 프랑크푸르트에서는 <u>자전거 전용도로가 강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물론 도보를 통해 걷는 보행자 역시 갓길에 설치되거나 인도 주변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조심해야 함</u>

: 현지 가이드의 증언에 의하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접촉사고 시, 차량과 자전거의 관계, 자전거와 자전거의 관계, 자전거와 보행자의 관계 모두 상관없이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사회적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함

: 재미있는 사실은, 프랑크푸르트 도심에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차로나 골목 진입로의 경우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함

: 자전거 전용도로가 인도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가 없으면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함. 필자는 이 관례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쩌면 차량이 자전거를 피하는 것이 쉽지 자전거가 보행자를 피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어려우기에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함

: 신호등에서도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자전거 전용 신호가 있으면 이를 따라 가는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보행신호와 같이 나오기도 한다는 점임. 그것도 없으면 차도 신호에 맞춰서 자전거가 진행하면 되는 논리.

2) 평 가

: 저탄소 운동, 탄소중립 행동 등으로 자전거를 장려하는 것에는 십분 동의하나,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필자는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자전거를 조심하라는 현지 가이드의 경고를 들을 수 있었음. 이 경고는 일정 내내 들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사회적 관례는 프랑크푸르트만이 아니라 도이칠란트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 관례인 것으로 판단함

: 필자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은,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 역시 보행자로 취급해야 함이 마땅한데, 뒤이어 와 멈춘 차량을 발견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하차 승객을 조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더 맞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차 승객이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임

: 이는 어쩌면 과도한 PC주의(정치적 올바름) 물결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들게 함. 전적으로 자전거를 장려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면 그들만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 모두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례를 만들었어야 함이 옳다고 봄

3) 활용방안

: 서울시는 프랑크푸르트와 달리 산과 언덕이 많아 자전거가 사회적으로 성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견문은 서울시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

: 하지만 한강 둔치를 포함한 한강 주변과 여러 중소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하이킹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와 달리 시시각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여 좌우로 움직이기가 상대적으로 힘듦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진행 방향을 정해 두며, 보행자 및 하이킹 도로는 그 옆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

: 다행히 대부분 이렇게 현행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듯도 함

: 하지만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 서울에 가장 큰 골칫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륜차 문제를 빼놓지 않을 수 없음.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배달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륜구동 이동기기는 생각보다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음.

: 도이칠란트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상기하여 이를 대처하고자 한다면 갓길이나 특정 구간에서는 이륜차 전용 도로를 설정하여 이륜차가 일반 차량의 진행 혹은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배치함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2. 도이칠란트는 블랙박스가 불법

1) 견문록

: 현지 가이드의 증언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포함 도이칠란트는 블랙박스 설치 및 촬영이 불법이라고 함

: 이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차량에 설치한 블랙박스는 무작위 정보취득이라 인식되기에 더 무거운 불법으로 판정한다는 설명을 입수

: 이것이 얼마나 까다롭냐 하면, 자신이 소유한 건물 또는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한 CCTV도 자신이 법적으로 소유한 건물 또는 땅만을 비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임

2) 평 가

: 극단적인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인해 안전보장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사실상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을 쓸데없는 짓에 활용하는 자가 문제인 것이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블랙박스 설치 및 촬영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견해

: 또한 내 집과 내 땅을 지키기 위한 CCTV에 본인이 찍히는 것이 극도로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물론 CCTV가 타인의 집이나 창문 등을 비추고 있다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고층 아파트도 그다지 없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얼마나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임

: 타인의 집 혹은 건물 CCTV에 본인이 찍혀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타인의 집 혹은 건물에 해를 가한 행동은 아니었을지 반성하는 것이 먼저였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함

: 즉, 성경 속 창세기에 나오듯,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

라고 하신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어 버리고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어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 있던 것을 비유하고자 함. 이미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가리든 가리지 않든 보고 계셨을 텐데 자신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숨은 게 아니냐란 필자의 논리

: 하지만 도이칠란트 현지인들이 이를 극도로 싫어함은 필자도 느껴지는게, 필자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광장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찍자 멀리서 스킨헤드를 한 남성이 필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까딱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아마 그 남성은 필자가 본인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괜히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됨

: 필자는 물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CCTV나 블랙박스의 촬영은 당연하다는 주의지만, 어째 2020년 대한민국과 도이칠란트의 강력범죄 발생은 대한민국이 앞선다는 것이다. 즉, <u>CCTV와 블랙박스가 안전보장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논리</u>

3) 활용방안

: 우리나라 역시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또 조주빈과 같은 N번방 사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가 있음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범용 CCTV나 차량 부착용 블랙박스를 경계하는 사람은 매우 드묾

: 이는 필자가 상위에서 논했듯이, 그렇게 미필적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자신의 성욕 및 특정 목적에서 사용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촬영을 시켜놓는 것 자체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견해가 있음

: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촬영하되, 그 결과물은 수사 및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함이 아닌 상황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사회 관례를 지속해서 교육해야 함

: 참고로 오해는 없으면 하는 게, 필자 역시 몰카범과 개인 촬영물 무단 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임

3. 도이칠란트는 투숙객을 고려하지 않아 더운 나라

1) 견문록

: 이는 사실 필자가 본 국외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1순위의 평가임

: 숙소에서 에어컨은 선풍기도 못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둥 마는 둥 한데 창문은 8cm 정도 열리는 게 다인 답답한 숙소가 이어짐. 참고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호주에서의 숙소 역시 자살방지 등을 위해 창문이 활짝 열리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적어도 에어컨은 투숙객이 자신에게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견해임

: 결국 필자는 이번 국외 의정활동 중 해가 떨어진 새벽 2시경 외에는 단 한 번도 객실에서 '시원하다'라는 감각을 느낀 적이 없음

: 화장실을 포함한 욕실에 세면과 목욕을 위한 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충격적임. 희한하게도 욕실에 TV 스피커가 존재하여 TV를 틀어 놓으면 그 내용이 욕실에도 생생하게 들린다는 점인데, 이런 쓸데없는 것 해놓을 여유가 있었다면 욕실에 환풍구를 만들었어야 맞다는 견해임. 환풍구가 없는 욕실에서는 용변을 볼 때는 물론, 투숙객이 샤워는커녕 세면만 하고 나와도 후끈후끈한 더운 공기와 가득 찬 습기가 계속해서 객실까지 떠도는 악순환이 이어짐에 따라 실외는 시원함에도 불구하고 객실에서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였음

: 더 황당한 점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고장 난 것인지 냉장고가 우리가 생각한 냉장고가 아니라는 점임. 실제 필자가 전원선을 뽑았다가 다시 끼고 온도 레버를 가장 강함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도는 새벽 2시경 실외 온도와 다를 바 없는, 차가운 것은 아니고 시원한 것도 아닌 살짝 '서늘한' 느낌만 주고 있다는 점이 아주 황당하다는 견해임. 늘 찬물을 마시고 사탕과 같은 디저트 역시 차게 해서 먹는 필자는 본 국외 의정활동 내내 대한민국을 그리워했음. 입가심용으로 산 사탕이 다음날 되자 살짝 녹아 끈적였는데, 이는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임

: 필자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됨. 투숙하며 더울 때마다 꺼내 먹을 생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았으면 울부짖었을 것임

: 이를 현지 가이드에게 토로하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그러한 정책을 취한 경우가 있다는 진술만 받을 수 있었음

: 실제로 어느 식당을 가도 필자가 직접 돈을 내고 '얼음물'을 사 먹지 않는 이상, 식수는 모두 미지근한 상태였음이 참으로 끔찍함

2) 평 가

: 만약 탄소중립을 위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시행했다면 도이

칠란트의 정치인들은 매우 반성해야 함. 물론 멋진 문화유산과 국가적 이미지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축복받은 지역이라 '대접'이라는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행하러 온 이들이 자기 고향 집처럼 편안하게 쉬고 돌아가야 다음에 또 오는 법인데, 이렇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대접한다면 과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달린다고 봄. 실제로 필자는 도이칠란트는 이제 '놀러' 갈 일은 없다고 다짐했음

: 무엇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면 관광객이 해당 국가 혹은 도시의 고유문화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즉 '니즈'를 잘 이해하고 이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임

: 이러한 면에서 비추어볼 때, 필자의 본 글을 웃으며 보는 이도 있겠지만, 이는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었음을 반면교사로 논하고 있음을 이해하기 바람

: 서울시가 아무리 삼겹살이 유명하다고 해도 무슬림 관광객에게 삼겹살을 권하면 결례가 되는 상황을 비유하면 딱 맞을 것임

: 아예 에어컨과 냉장고가 없는 전통 숙소라면 그 상태에 적응해야 함을 이해하지만, 에어컨과 냉장고가 멀쩡히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지지 않으니 불쾌함이 나오는 것임

3) 활용방안

: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2036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만큼, 숙소에서만큼은 도이칠란트를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됨

: 에어컨과 냉장고를 마치 객실을 시베리아로 만들 만큼 춥게 하라는 말이 전혀 아님. 머물고 있는 투숙객이 본인의 특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4. 이제부터 '물의 도시' 타이틀은 서울시가 가져간다!

1) 견문록

: 이 단락을 보고 웃는 독자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 필자의 말을 이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유럽 대륙 대부분이 석회질이라 담수는 물론 지하수 역시 석회수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기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님

: 본 단락은 오히려 대한민국과 우리 서울특별시가 더욱 빛나는 것을

의미함

: 현지 가이드 역시 현재 도이칠란트 역시 정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화장실 세면대의 물을 그냥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음. 필자도 목이 마를 때나 샤워하며 더울 때 그냥 나오는 시원한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탈이 없었기에 이는 긍정함

: 하지만 필자가 본 단락을 만든 이유는 바로 '물을 물처럼 마시지 못하는 도이칠란트'라는 점에서 시작됨

: 필자가 필요로 하는 찬물은 물론, 얼음물은 고사하고 몇 식당에서는 돈 주고 사 마셔도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주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음. 김밥천국과 같이 완전 값싼 프랜차이즈 식당을 가도, 저 멀리 시골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도 시원한 물 달라면 그대로 가져다 주는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대함

: 또한 서울특별시는 아리수라는 훌륭한 식수를 보유하고 있음. 아리수는 지난 베이징올림픽 당시 선수 및 봉사자용으로 지원되었을 만큼 잘 알려진 뛰어난 식수임

2) 평 가

: 따라서 이제 '물의 도시' 타이틀은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아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아니고 대한민국 서울이 내거는 게 맞음

: 서울시 어디에서나 깨끗한 물, 시원한 물을 광장은 물론 공원과 문화예술 공연장, 유적지, 심지어는 관공서에서 자유롭게 공짜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매력이라 판단

: 사람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수를 마시지 않으면 단 3일도 살아있기 힘들기에 이러한 홍보는 분명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

: 옆 나라 중국도 식수가 확실치 않아 늘 끓인 후 차를 달여 병균과 흙냄새를 죽이고자 한 점을 상기하고, 또 다른 옆 나라 일본은 그나마 우리나라와 서울처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확보하기는 쉬우나, 일본 식당 특유의 '내돈내산' 문화로 인해 모두가 마냥 공짜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내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좋은 홍보문구가 될 것임

3) 활용방안

: 서울특별시를 홍보할 때, '물의 도시'라는 것을 내세웠으면 함

: '아리수가 넘쳐흐르는 물의 도시 서울!'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유럽 및 식수가 안정적이지 않은 아프리카, 중동지방 출신의 관광객들은 매우 와닿을 문구라는 견해임

: 이를 반대하는 이가 있다면 지구상 어느 국가의 수도가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공짜로' 어디서나 쉽게 마실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홍보문구를 보내주는 것도 좋다고 봄

5. 슈테델 미술관

1) 견문록

: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뮤즈'에 대한 존경과 경건함을 담은 건축물로 시민을 위한 미술관을 마련하고자 짓게 되었다고 함

: 재미있게도 처음 설립자가 미술품을 먼저 소유한 상태로 이를 보여주기 위한 미술관을 만들게 되었다고 함. 1877년에 설립자는 전시할 작품을 미리 모으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한 후에 미술관을 만들었음

: 즉, 보통 우리가 아는 화랑이나 미술관을 먼저 짓고 그곳에 작가들을 모집하여 작품을 전시한 것과는 사뭇 다른 접근방식으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음

: 슈테델 미술관 자체가 뮤즈를 모시는 신전을 모티브로 하였기에 대단히 웅장하고 또 그리스식 건축방법이 외부에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음

: 미술관만 떡하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낀 마인강을 따라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이 줄지어 있어 '박물관거리'를 조성함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더 좋은 문화 및 예술과 이를 감상하기 위한 관광이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견해

2) 평 가

: 슈테델 미술관은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뮤즈를 모시는 신전을 모티브로 하였듯이,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이 만약 재단장을 한다면 우리 전통은 아니지만 불교 신화에서 등장하는 변재천을 대상으로 꾸미는 것도 재미있을거란 견해

: 슈테델 미술관이 박물관거리로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을 끼고 존재하고 있기에, 추후 건립된 서울시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한강이나 혹은 특정 모티브가 될 개천 혹은 길을 중심으로 연달아 존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

3) 활용방안

: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이 추후 증축하거나 신설하게 될

때, 본관과 산하기관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여럿으로 나누어 배치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조성이 가능한 한 곳에서 이루어졌으면 함

6. 하이델베르크(하이델버억) 고성

1) 견문록

: 현지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독일어로 Berg가 산이라는 뜻이며, 실제 발음은 '버억'과 '부억'의 중간 느낌으로 발음해야 한다고 함. 그래서 현지 가이드는 '하이델버억'이라고 발음한 것으로 필자는 받아적음

: ~부르크나 ~베르크라는 지명으로 익숙한데, 이는 사실 일본 가타카나식 훈독이라고 함. 예를 들자면 나마비르(생맥주), 고히(커피), 비이루(빌딩), 마이(자켓), 스뎅(스테인레스), 고무다라(고무통) 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사료

: 또한 Ham이 들어가면 방어요충지 요새라는 뜻이라고 하며, 전문 용어로는 다카스라 함. 이는 반지의 제왕, 리니지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 판타지 세계관에서도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성'의 느낌임

: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신교(루터파 개신교)의 우세가 강한 지역임. 사실 프랑크푸르트는 신교의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압도적인 신교 우세지역임. 오죽하면 구교도를 여러 명목으로 압박하여 싹다 시외로 내보냈다가 최근 7개 가톨릭 성당을 복구하면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하였음. 하이델부르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신교가 구교 군세(주로 프랑스군)의 압박 속에서 버텨낸 전력이 있어 신교 우세 지역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음

: 하이델부르크와 마찬가지로 라인강의 300여개 성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성들은 지금도 귀족 혹은 영주 가문의 후예들이 살 것 같지만 사실 유지비가 어마어마해서 관리하는데 큰 힘이 들기에 많이 팔아넘긴 상태라고 함. 또한 전쟁 후 몰락 가문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진 후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무려 1유로에 성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 하지만 지금도 개인적으로 성을 소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가문이 존재하며, 내부를 공사하여 자기들이 직접 살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카페나 식당으로 고친 후 장사를 하거나 보유한 미술품 등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고성탐방 및 캠핑 야영장 느낌으로 체험학습장으로 개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짐

: 도이칠란트에는 영업세라는 존재하여 아무리 개인이 가진 성이라 해도 엄연한 문화재 취급이라 이곳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면 영업세를 납부해야 함. 또한 문화재 취급이라 소유 가문이 리모델링이나 고치고자 해도 까다로운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 때때로 개인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은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 성을 소유한 것이 결코 낭만적이지는 않다고 함

: 성 중에서 전투방어용 요새 다카스 종류가 아닌 '츌로스'라 하여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처럼 보여주기식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도 존재함. 이러한 츌로스는 가문 혹은 개인이 소유한 경우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내기도 함

2) 평 가

: 개인적으로 버억 버억 그러니까 인기 인터넷스트리머 '김기훈'의 유행어 '버어억~!'이 떠올라 장난치고 싶어 힘들었음

: 하이델부르크 고성은 매우 훌륭했으며,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웅장하며 옛 시설이 그대로 보존되어 온 점에 대해 매우 깊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음

: 또한 고성이 산 위에 위치하여 아래서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설치된 케이블카를 타고 손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다가옴

: 우리나라와는 달리 축성 문화가 발달하고 또 다카스 외에 츌로스 형식의 아름다운 궁전형 성이 발달한 점은 참 흥미로웠음. 비록 우리나라에는 적용하지 못하겠지만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 또는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3) 활용방안

: 하이델부르크 고성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워낙 방어에 훌륭한 지리적 입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므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점이 매우 매력적임

: 특히 케이블카가 일반적인 깡통형이 아니라 탄광열차처럼 수직상승형 각도로 제작된 전용열차라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음. 하지만 우리 서울의 남산이나 북한산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느낌이 있다고 느꼈기에 우리에겐 깡통형 케이블카가 적절하다는 견해.

: 우리 서울 한복판에 케이블카를 왜 짓냐고 반발하는 환경단체가 여럿 있는데, 하이델부르크 고성으로 가는 케이블카는 대놓고 고성 성벽까지 접근하는데, 이러한 반대를 어떻게 대응했고 어떠한 협상이

있었는지는 매우 궁금할 따름임

7. 하이델베르크 대학 학생감옥

1) 견문록

: 현지 가이드의 증언에 의하면 의과가 매우 유명한 대학임.

: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잿더미가 되어버린 도이칠란트 국토 안에서 미국 등의 연합군 지원을 받아 재건을 시작했을 때, 당시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세울 당시 세계 각지에서 유능한 의사 및 의과 교수들을 적극 스카웃하면서 그리된 일이라고 함

: 실제로는 도이칠란트 내 대학 간에 서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대학생들, 특히 의과로 유명한 대학이다 보니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며, 대학 자부심을 지키고 이미지 보수를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단죄하는 '학생 감옥'을 만듦

: 학생감옥은 지금도 활용중이며, 실제 감옥처럼 기숙사동 탑 꼭대기층에 만들어놓은 골방이라고 함. 벽에는 누구 왔다 갔다, 교수 욕, 조교 욕 등 여러 낙서가 가득하다고 함.

: 학생감옥이 재미있는 점이, 하이델베르크 인근에서 술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교수나 조교, 혹은 같은 학우끼리 싸움을 일으키는 식으로 체포되면 교내 윤리위원회와 같은 선도 그룹이 형량을 조절하여 수감 선고를 받게 되는데, 3일째까진 빵과 물만 지급되며, 4일째부터 사식이 가능하다는 재미있는 규칙이 있다고 함

: 하지만 본래 내부 윤리 및 규율 선도 목적이었는데 어느샌가 "나 빵에 다녀왔다!" 식으로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자랑거리 또는 훈장 내지 무조건 졸업까지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수두같은 존재가 되어버려 일부러 들어가고자 난동을 부리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일도 벌어진다고 함

2) 평 가

: 일본의 유명한 소년만화 '감옥학원'이 생각나는 대목임

: 우리나라에도 교내 윤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여 문제나 사고를 발생시킨 장본인에게는 그만큼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문화가 존재함

: 물론 학생감옥에 수감 되는 일이 학교의 명예를 더럽혔거나 이미지 훼손을 일으키는 짓을 했거나 교수, 조교, 학우, 임직원 등 교내에서 싸움을 일으켰거나 하는 문제이므로 신병을 구속한다는 것에서 위험

의 소지가 있음

: 애초에 공권력이 아닌 부분에서 사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

: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적 제재 공간이 적절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한 집단 내에서, 특히 대학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안전 및 사회 유지용으로 좋다고 생각함

: 특히 완전 감옥이라기 보다도 술 마시고 행패나 난동을 부리거나 실수를 저지른 기숙사생은 3~5일 정도 기숙사가 아닌 학생감옥에서 지내며 알코올은 입에 절대 대지도 못하게 하고 심리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임

: 때때로 이에 대한 성적 호감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권한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다른 의미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3) 활용방안

: 학생 근신조치 등의 활용방안이 떠오름

: 하지만 확실히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학생감옥처럼 사적 제재로 신병을 구속하는 행위는 자칫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냥 재미로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됨

8. 도이칠란트의 대학제도

1) 견문록

: 도이칠란트의 대학교는 모두 공짜로 다닐 수 있다!

: 도이칠란트의 대학교는 (하이델베르크 의과대학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혀 상하관계가 없어 자신이 공부를 원한다면 아무 대학이나 가도 된다!

: 도이칠란트의 대학교는 외국인에게도 공짜다! 이야 신난다! 유학가자! 도이칠란트 대학은 세계 제이이이이이이이일!

: 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판이 될 수 있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 도이칠란트의 대학은 누구나 쉽게 입학할 수 있고 누구나 공짜로 다닐 수 있으며 공부 역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바로 학위 통과임

: 도이칠란트 대학의 통과율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함. 우선 학위 연구는 고사하고 학기 후 시험에서 세 번 떨어지면 다시는 그 대학에서 해당 학과를 공부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규칙

이 있음

: 예를 들어 성호대학 영화연기과로 입학했는데 연기이론 시험에서 세 번 낙방하면 성호대학 영화연기과 연기이론 수업을 들을 수 없으므로 결국 영화연기과를 포기하거나 성호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 가서 해당 과목을 공부해야 함을 의미함

: 이는 대학생활 자체가 무료인 점에 착안하여 '확실하게 연구할 인원만 대학에 잔류시킨다'라는 목적 아래 1/3 정도만이 간신히 통과하는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

: 사실 교수가 착해서 많은 인원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문제가 많음. 나중에 학위 연구에서 더 큰 고통을 안게 되며, 특히 해외유학의 알파요 오메가인 석박사 과정으로 갈 예정이라고 가정할 때, 많은 인원이 그곳에 몰리면 오히려 석박사 과정에서 낙방할 확률이 더 커지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싹을 자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평 가

: 요는 진짜 공부하고 진짜 연구할 사람만 남기겠다는 의지임. 이는 우리나라도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사실상 정원을 못 채우는 미달 대학도 많은데다가,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 학사 비중이 너무나도 많고, 석사 및 박사 학위자도 과도하게 많은 게 사실이라는 정론이기에 이러한 제도가 언젠가는 도입되어야 함은 공감하고 있음

3) 활용방안

: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제도를 바꿀 수는 없음. 그렇기에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함이 선행되어야 함

: 대학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은 인식 자체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곳으로 박혀 있어 매우 아쉬움. 이를 먼저 개선해야 함

: 사실상 사립대학은 하기가 어려우니,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같은 국공립 대학부터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학문과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함

9.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1) 견문록

: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로, 총 101명으로 지역구 52석, 비례대표 49석이라는 경이로운 의원수를 자랑하는 의

회임

: 의장은 주의 대표, 즉 주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이 주 부통령이 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주통령과 주부통령은 의원 중에서 선출됨

: 현재 6개의 정당이 존재함. 라인란트팔츠에는 사회당, 녹생당, 자유민주연합이 주로 원내를 이루고 있으며, 기독민주당, 자유시민연합, 극우주의 정당도 존재하고 있음

: 사실상 의장을 의원들이 선출하기에 의장은 가장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서 선출함

: 의회 본회의장이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음. 원래는 반원 또는 마주보는 형식이었는데, 1980년대에 <u>의원들이 서로 얼굴보고 회의하자는 주장을 스스로 펼쳐 이렇게 구축</u>했다고 함

: 의장단석을 12시로 하여 1시부터 사회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기독민주당, 자유시민연합, 극우주의 정당, 정부당료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면 정부 관료석과 의원석이 동일한데, 이는 같은 높이에서 같이 논의하자는 의미로 해석됨

: 의회당 한쪽 벽면에 거대한 도이칠란트 국기가 있는데, 이는 1832년에 만든 것으로, 당시 가난했던 라인란트팔츠의 주민들이 헌옷을 모아 기증하여 만든 것이라 함. 그래서인지 뒤집어 보면 넝마처럼 여기저기 얽히고 짜깁기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함

: 도이칠란트 통일 당시 동독과 체제가 달라 생각보다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전해짐

: 본회의장에 전자 의결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일전에 파괴된 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쳤는데 당시 의원들이 전자장비는 필요 없다, 예전처럼 종이에 써서 하거나 개인 휴대 장비를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의견이 도출되어 지금도 전자 의결 장비를 쓰지 않고 <u>전통적인 거수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u>하고 있음

: 투표 방식으로는 정부각료 임명시에만 비밀투표를, 나머지 주 안건과 상정된 제·개정안, 기타 모든 의결 시에는 공개 거수로 투표한다고 함

: 발언 시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무조건 발언대에 가서 발언해야 하며, 질문토론 시에만 자리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됨

: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를 하듯 정부관료에게 질문하는 날

은 따로 있는데 답변하는 관료는 발언석에, 의원은 의원석에서 질문하게 되어 있음

: 유럽의회라 하여 EU의 의회 의원 역할을 하는 자들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들은 주 의회의원과 겸직이 가능하다는 재미있는 사안이 존재함

: 현재 주구역 경계를 나눈 경계선은 2차대전 이후에 갈라진 것이며, 중세와 근대세대까지 라인란트팔츠의 행정은 영주가 진행했음. 재미있게도 이곳은 영주의 직업은 주교였다고 함

: 그래서인지 의회 건물의 옆 건물이 영주이자 주교인 분이 머무르고 일을 보는 영주의 성이 있다고 함. 생긴 모습이 전투방어용 요새가 아닌걸 보니 츌로스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음

: 참고로 의회 건물은 과거 성기사단의 본부였음. 과거 영주인 주교를 따르고 그를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성기사단의 본부를 이제 의회로 사용하니,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라인랄트팔츠 주를 수호하는 시민의 기사라는 사명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함

: 본회의장에서 당 대표 또는 원내 중책이 앞쪽에, 그리고 뒤로는 순서대로 앉는다고 함. 이것은 우리나라 의회와는 사뭇 다름. 우리 서울시의회는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있지만, 국회는 필자가 알기로 초선이 앞에, 그리고 다선일수록 뒤로 가며 당 대표 혹은 원내대표와 같이 중책이 뒤에 앉아 상황 컨트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평 가

: 4백만 명이 거주하는 주에 의원이 100명이 넘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비효율적이라는 견해

: 결국 의원 1명이 4만명을 대표한다는 셈인데, 그럼 약 9만명을 책임지는 필자보다 한참 적은 수를 대표한다는 것임. 우리로 따지면 구의원 레벨이라는 셈인데,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음

: 사실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생겨난 일임. 그래서 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극도로 경계하는 주의임. 의원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선에서 있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필자의 견해는 10만 명 당 의원 1명이 적당선이라고 보고 있음. 이는 백인대장부터 올라오는 군단장의 체계를 갖춘 로마군단식 체계에 기인함

3) 활용방안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쓸데없이 비례대표 의원이 많은 것을 몸

소 보았으니 우리나라에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됨

: 국민들은 지금도 의원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임

10. 라인란트팔츠 주의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정치학교

1) 견문록

: '왜 주 정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매주 교육 및 현장 견학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시행중임

: 사실 이는 미국식 연방 지방자치제를 채택한 나라와는 달리 독일만의 독특한 연방 지방자치제로 인해 생겨나는 불협화음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함

: 미국식은 연방, 주, 거주중인 마을이나 도시에서 대해 지방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셋 다 세금을 걷어감. 하지만 독일식은 기초단체와 연방정부만 세금을 걷을 수 있어서 주 정부는 세금을 걷지 못해 기초단체 혹은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구조임

: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내려보내면 주 정부는 이에 맞춰서 시행하는 방식을 하고 있음. 하지만 세금을 걷을 수 없어 시행하는 데에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데, 책임론이 발생했을 시 이를 양측에서 모두 서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음

: 이를테면 연방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수칙과 관련 예산 활용에 대해 지침이 내려왔는데 주 정부 실상으로는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중구난방이 되어버렸던 사례가 있음. 당시 주 정부마다 차이가 심했던 터라 단점이 굉장히 부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이 실망함

: 이에 주 정부마다 시행의 온도가 다르고 연방정부에서 말한 내용이 주 정부의 시행과 차이가 달라 불편함을 시민들이 직접 느끼게 됨

: 사실 주 정부의 시행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냥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주마다 시행이 다르면 운송업과 같이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의 경우 시행령이 상이하니 굉장한 불편함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임. 물론 당장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 불편함을 감수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왔다고 함

: 그러한 결과물인지, 연방정부는 본래 3당 체제였으나, 최근 선거에서는 많은 소수정당이 들어섰고, 같은 당 출신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소속된 주마다 상이한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 연출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다양함을 존중하고 또 주마다 상이한 시행 온도에 발맞춰 시민들이 직접 변화하고자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 정부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의회에서 앞장서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양성까지 이르게 된 것임

2) 평 가

: 아주 좋은 제도임. 우리나라에서도 각 정당마다 정치학교를 시행한 적 있지만, 딱히 이렇다 할 결과물은 도출된적이 없음. 필자가 기억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학교는 자유한국당 시절 청년보좌관 양성학교였다고 봄. 당시 1기에 참여한 필자는 청년보좌관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출신 동기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국회 비서로 취직된 것에 대해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음

: 이를테면 그저 시정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치학교 내지는 의정학교가 시행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3) 활용방안

: 필자가 멘토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부터 먼저 손을 볼 생각. 이것을 아예 조례로 못 박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봄

11.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파트릭 훈츠 의원과의 문답

1) 의원개요

: 군인 출신으로, '유럽과 하나의 세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내고 있음. 본 위원회는 6개 정당과 무소속 1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주의회에는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훈츠 의원은 4개 위원회에서 활동 중임

: 관심있는 분야로는 노인 복지관련 스포츠 정책임. 고령인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클럽을 만들어서 강사도 데려오곤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기초단체의 협조를 받아오곤 한다고 함

: 무엇보다 여러 세대를 모아 함께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며, 세대 격차나 세대 분리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을 가장 지향하고 있음

2) 정치지향

: 독일에는 독특하게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조부모에게는 굉장한 힘이 들기 때문에 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 하지만 훈츠 의원 본인은 고령인구의 건강유지를 위한 투자가 옳은지 의료비용 지원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이 부분은 필자도 동의하는 바임

: 어린이들에게 업적 훈장(메달)을 모으게 하는 스포츠 제도가 있음. 이걸 고령인구에게도 적용하려고 준비 중. 기초단체별로 우리와 같이 스포츠외에도 문화 예술 활동이 있는데, 이를 접목시켜서 도이칠란트 문화유산 투어 같은 것도 발전시키고가 함. 예를 들면 드레스덴 관광 같은 것

3) 필자와의 문답

Q : 지역에서 밀고 있는 문화 예술 행사가 있는지?

: 카니발이 있음. 카니발을 전폭적으로 키워서 세대 간 격차고 줄이고 주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야당에서는 시민사회를 어우르는 행사라 공휴일로도 만들고자 하는데 아직 논의 중임

Q : 카니발 준비작업은 공무원이 지원하는가?

: 그렇지 않음. 카니발 준비작업은 100% 시민 민간주도로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간 시민사회에서 만들고 있음. 독자적으로 준비하며, 약 100여대를 만들고, 행진하며 춤추고 공연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 하지만 카니발 준비비용을 민간이 다 부담하기는 힘들어서 안전, 위생 등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지원하고 있음. 또한 준비하고 집행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주 정부도 지원하고자 논의 중에 있음.

: 축제에 입는 복장은 전부 사비로 충당하며, 행진 시 사용하는 차량도 사비인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임

: 주로 주 기획단체가 존재하며, 여기서 연회나 자선사업 등으로 비용을 모아 충당하고 있음. 다른 주도 비슷한 상황임

Q : 카니발 중 노점(보도상영업시설물)이 존재하는가?

: 카니발 중에 노점은 존재하지 않음

: 물건을 파는 이는 원하면 시청에서 자리를 지정해주고 돈을 지불하여 허가를 얻을 수 있음. 이때 판매품목은 철저히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이를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이도 있으므로 꽤나 투명하다고 볼 수 있음

: 여담으로 늦여름에 큰 와인행사가 있음. 모든 와인 판매부스는 신청

해야 하며, 점포와 가판대를 둘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계를 확실하게 작성하여 신고해야만 가능함. 개수도 한정적이여서 100여개만이 운영 가능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도록 직접 확인한 오크통을 쓰도록 되어 있음

: 간혹 카니발 중 공원이나 한적한 곳에서 작은 놀이동산을 만들어 즐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점에 비해 허가가 비교적 낮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Q : 오버투어리즘 사례가 있는지?

: 그런 적 없음

: 관광분야에 600만~7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약 10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자되어 많은 산업을 구축하고 있음

: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 하나가 프랑스와 국경 사이에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적 있는데, 지금은 해결되었고 이를 와인축제와 연계하고자 함

: 축제가 열릴 때 총 약 2,300만 회의 숙박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 이때 1박에 1유로만 받아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니 이를 활용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사용하고자 함

: 관련하여 숙박세, 문화세, 관광세라 부르고 있음. 이를 활용하면 약 2,300만 유로를 얻을 수 있으니 꽤 짭짤한 수입이 됨

Q :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코블렌츠 케이블카는 어떻게 허가된 것인지?

: 본인 임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음

: 하지만 확실한 것은, 유네스코 유산을 해치면 안되고, 만약 해친다면 유네스코 지정을 박탈당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

: 케이블카가 여기서 유리한 게, 행사 시기에만 사용하고 이후에 철거하면 훼손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를 허가받은 후에 유네스코와 협의하여 연장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말뚝박게 된 것이라 함

: 대단한 꼼수가 빛을 발했다는 느낌임 - 필자 주

: 반대로 마인츠시에서는 성 확장을 시도하고자 했는데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음

12.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1) 견문록

: 유럽 최대의 MICE전문 전시회임

: 서울시부스는 호텔, 여객, 식사 등 10개 업체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

며, 작년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진행했는데, 부스가 이미 소도시 등 제한이 걸려 있어서 분리해서 진행하게 됨

: 이번 회사참석은 40개 회사여서 아쉽지만 1/4로 걸러내서 진행하게 되었음

: 가장 아쉬운 점이,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서울을 선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임. 이건 경전철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 국토균형발전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함

: 아무튼 이번 아이맥스에는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 SMA등이 공동 참가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은 잠실, 마곡쪽에 짓는 MICE 관련 산업단지가 그다지 거대하지 않다는 점임. 롤드컵, 국제경제대회 유치가 이러한 MICE 전시장에서 담당자를 만나 이루어진 것인데 정작 이를 유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임

2)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지사

: 2019년 기준 여행객 9,950만명으로 중국, 미국 다음으로 독일이 위치하고 있음. 독일은 기후가 좋지 않아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임

: 독일인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아시아권에서는 태국을 선호하는 편이며, 그 다음은 일본임. 한국 방문이 2019년에는 120,730명, 일본은 235,544명으로 약 두배를 기록하고 있음

: 작년통계로 독일에 간 한국인은 231,613명, 한국에 온 독일이능ㄴ 약 130,000명이라고 함

: 한국문화 소비층이 주로 한국에 방문하는데, 이는 주로 젊은 세대가 차지하고 있음. 한국문화 소비층이 한국여행 호감도 상승의 고무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한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변경용이 예약조건 선택(39%), 지역 특색경험 선호(29%), 지출가능액 증가(12%), 지속가능한 여행방식 선호 순으로 나타났음

: 한국인은 독일에서 무비자 입국 최대 90일간 체류가 가능함. 그래서인지 유럽최초 해외지사가 되었으며 대륙전체 마케팅을 총괄하는 전진기지로 역할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원거리여행 회피 경향이 있었으나 지금은 나아져서 유럽 내 행사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독일은 주로 52개 문화유산, 예술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유산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아도 무방함

: 오페라하우스 약 80곳, 박물관 7,200여 개, 전시행자 8,000회 이상을 유치하고 있음

: 베를린영화제, 바이로이트 오페라축제, 록페스티벌 롯액더링 등 세계적 축제를 유치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화에 성공한 케이스임

Q : 대한민국 역시 훌륭한 문화유산과 예술, 역사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일본 지부의 경우에는 전국시대 근거지를 초점으로 상품을 내건 것을 볼 수 있었음.

: 사실 대한민국 하면 서울, 부산, 제주 순으로 잘 알려진 터라 젊은층은 모험심에 지역까지 가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아직은 모든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이 매우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 마치 1일 보러 갔다가 10을 알게 되는 느낌을 준다고 조사됨

: 특히 등산과 같은 스포츠는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먼저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잘 물어보지 않음. 이것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더 알려졌음을 의미함

: 응답자의 분석대로면 확실히 K-pop 관련 체험이나 상품 이용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음. 특히 행사의 위치나 촬영지 등의 장소를 '성지순례'하는 문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짐

: 세계 탑 순위로 안전한 거리를 선호하는 이유로 대답하기도 함

: 확실히 인프라는 일본, 싱가폴에 비해 밀리지 않음. 하지만 싱가폴은 섬 내에 뭉쳐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국토에 흩어져 있는게 큼. 싱가폴의 경우 MICE를 개최하면 관광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해석

: 싱가폴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히려 제주도가 떠오른다는 주장

Q : 근무하며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라면?

: 정부나 정책에 있어 하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게 어려움

: 한국인 특성상 제각각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집중이 안되고 흐트러지는 특성이 있다고 봄. K-pop과 같이 집중할 것을 딱 잡아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

: 중국의 묘족이라는 소수 씨족의 경우에는 묘를 심는 것 자체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보여주기도 함

: 이에 맞춰 대비한다면, 우리도 공짜 관광상품을 좋아할 이유를 없애야 한다고 봄. 천 원이라도 관광료를 지불하면 사람 심리상 이를 확실하게 대접받아야 하므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료보다는 적당한 소정의 유료가 맞음

13. 파울교회

1) 견문록

: 시민 민중의회가 생겨난 곳. 그런데 프랑스대혁명처럼 민주화의 주역들이 오히려 정권을 잡자 더욱 심한 갑질을 하였다고 함

: 교회 내부에 둥근 복도가 있는데, 그 벽에다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려놓은 것이 특징임

2) 평 가

: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 역시 당당하게 개방하고 공개한다는 점에서 높게 사고 있음

: 어쩌면 우리나라도 민주화의 주역들이 오히려 지금은 기득세력이 되버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역시 역사는 과오를 반성하고 인정하는 데에서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14.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

1) 견문록

: 도이칠란트는 83백만명 중 27백만명이 스포츠인임

: 8만 7천개의 클럽이 존재하고 있으며, 매년 4억 5천만 시간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생활체육임

: 정부 소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행사나 큰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만 지원을 받고 있음

: 또 다른 목표로 가장 낮은 종목을 자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급지원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가급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함

: 지원봉사자가 없으면 유지하기가 힘든 조직이기도 함. 트레이너 역시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음. 지역 종목 클럽에서 시작해 연방 체육연맹까지 조직도가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음

2) 카트린 그라파랜드 국장과의 문답

Q :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원봉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

: 정확히 짚었음

: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젊은층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 모집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과거와 비교할 시 확실히 감소하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젊은층이 잘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Q : 자원봉사 독려를 위한 게 있나?

: 사회적 혜택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를테면 봉사점수와도 같은 것임

: 영연방에 속한 나라들은 에딘버러 공작의 상(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을 사용하여 독려하고 있음 - 필자 주

Q : E스포츠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사업으로 보는 것이 조직 때문인지?

: 종목 클럽 조직 관련해서 본 DOSB에 속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지역 조직 구도가 이루어지지 못해 회원자격을 얻을 수 없음

: 하지만 유럽리그에서도 활용된 바, 이에 대해 채택할 이유가 있다고는 보고 있음

: 실제로 답변자는 일전에 피파온라인 같은 게임을 종목이라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저 가상축구의 일환으로 이해함. 쉽게 설명하면 스포츠는 땀을 흘려야만 진정한 스포츠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더욱 논의해야 함

15. 친환경 에너지의 도이칠란트

1) 견문록

: 현재 독일은 모든 원전을 중단시켰음. 그리하여 35%가 자연에너지로 발전하고 있음

: 에너지 생산에 있어 친환경 발전은 최저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임. 그래서 공급이 확실할 때 에너지를 생산해 보관해야 하는데, 배터리는 잉여에너지를 모아두는 데에 비효율적인 방식임

: 그래서 그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로 전기분해하여 나눠 담음

: 산소는 의료용 혹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도록 팔거나 아니면 대기중에 살포해도 됨

: 수소는 냉각은 비효율이라 그냥 압축만 하는 것이 좋음. 이걸 팔아서 수익을 발생시켜도 좋고 전기공급이 모자랄 때에 산소와 결합시켜서 그 힘으로 에너지를 받아대는 것도 좋음

2) 평 가

: 그래서 에어컨과 냉장고를 그렇게 트나?

: 도이칠란트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 가능한 일일지도 모름

: 대한민국처럼 좁은 국토에서 친환경 발전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 해도 잘 안 뜨는 장마철에는 수력발전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함

3) 활용방안

: 잉여에너지로 물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와 산소를 확보하는 것은 괜찮은 아이디어임

: 하지만 우리나라 국토 여건상 이것이 얼마나 큰 효율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결론적으로 아직까진 우라늄 없이는 뭘 할 수가 없음.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켜서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더욱 효율적임. 필요한 전기는 더욱 늘어만 가는데 원자력 없이 뭘 어쩌게?

16. ZKM(챗케이엠)

1) 견문록

: 예술과 미디어센터라는 이름으로 버려진 탄약공장을 문화 예술 시설로 재건축한 좋은 사례임

: 인근에는 예술디자인 대학교와 시립 미술 갤러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을 맛볼 수 있음

: 현 CEO 알레스터 허드슨이 사실 영국인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듦.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을 보면 꽤나 개방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음

: 허드슨은 3대 CEO로 전임자는 약 20년을 운영하다 은퇴하고 지금은 또 다른 미술창작을 위해 연구하고 있음

: 챗케이엠은 고전적인 미술만을 고집하는 곳이 아니고 과학 기술과 접목시켜서 또 다른 예술을 창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은 MIT나 그와 유사한 공업기술 연구소를 모델로 삼아 연구하고 있음

: 즉, 과학기술과 예술, 미디어기술의 장점만을 따서 새로운 예술과 미

적 연구결과를 창조하자는 취지로 접근하였음

: 이곳의 또 다른 지향이라면, 여러 예술가들이 널리 자신의 작품세계를 알릴 수 있도록 프로덕션을 해준다는 것이며, 이를 도울 기술적인 연구도 함께 병행되고 있다는 점임

: 초대 CEO가 챗케이엠을 만들 때 신 건축학파인 바우하우스를 활용하였으며, 예술가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과학 기술자들도 모아 이것을 예술로 접목시키고 융합하고자 했음

: 놀랍게도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의 작품세계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함. 또한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티스트 김순광과의 협업을 올해 11월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힘

Q : 서울문화재단과 협력 MOU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양간에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함.

: 챗케이엠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과 교류해왔으며, 챗케이엠 설립 당시 백남준 선생께서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음.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학술적인 교류가 더욱되면 양국간에 더 좋은 교류로 좋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Q :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출연금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챗케이엠은 어떤지?

: 마찬가지임. 재정구조는 100% 국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비용만을 지원받고 있는데, 기본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말하는 것임

: 50%는 주 정부에서, 그리고 50%는 시(기초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보다 지출이 더 필요할 시에는 기부금 혹은 챗케이엠과 관련 행사에서의 입장료, 행사 대관료, EU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대적인 학술 및 예술 연구행사의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음

: 챗케이엠이 바라볼 때 대한민국은 정치적 견해가 서로 상이한바가 커서 4~5년마다 대표자가 바뀜에 따라 정책도 상이하게 바뀌어서 지속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가장 아쉽게 느껴짐

Q : 챗케이엠은 다국적인 관계자가 존재하는데, 창작된 예술작품의 소유권 내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 매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음... (멋쩍게 웃음)

: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해서 챗케이엠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유권은 해당 예술인의 소유로 두고 있음. 이는 물리적인 소유권을 의

미 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2차, 3차 창작권도 포함하고 있음. 물론 70년이 지나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 후손에게 물리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헌데 이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단, 작품 자체가 챗케이엠이 소유하여 활용할 수도 있음. 이론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함.

: 미디어아트의 경우 디지털화되기에 물리적으로 소유권을 보장받기가 매우 힘들기도 함. 따라서 이는 최초 창작자가 허가해야만 2차, 3차 창작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기조가 있음.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으면 챗케이엠에 소유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Q : 미디어아트의 경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미디어아트, 특히 비디오아트와 같은 것은 우리가 보아도 매우 신박함. 이를 비엔날레와 같은 전시행사를 열어서 많이 전파하고자 함. 더 자주 여는 것이 우리의 지향임

: 최근 미디어아트에 AI를 접목시켜서 또 다른 예술을 만들어내고자 연구하고 있음. 또한 챗케이엠에는 미술과 음악을 융합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예술작품도 연구하고 있음

: 본인들도 가장 인상깊다고 생각한 것은 인공구름 전시임

Q : 인공구름 전시가 무엇인지?

: 물과 온도, 기압을 이용해서 실내 전시관에 구름을 만들었던 적이 있음. 어린이는 물론 이를 바라보고 또 구름 내부로 들어가 체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깊었음

: 인공구름을 만들 때 실내를 실제 성층권처럼 꾸미고 미세 물 분자를 이용하여 공중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임.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과 미술이 합쳐진 새로운 예술

Q : 비도 역시 예술로 승화할 수 있다는 견해인데, 인공구름으로 비도 내리게 할 수 있는가?

: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는 기술은 아직 다다르지 못함 (웃음)

Q : 앞으로의 계획 중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 과학기술을 융합하다 보니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진 연구소가 필요하고, 예술에 활용될 장비 역시 고가이다 보니 자본을 가진 회사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챗케이엠이 최근 유네스코에 미디어아트로 선정된 바 있음. 서울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더욱 연구하면 서

울시에서도 더 좋은 예술을 창작할 수 있을 것

: 챗케이엠은 아티스트쪽 지원에 더 지향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진예술인 지원을 눈여겨 보고 있음. 대한민국의 현대가 이러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챗케이엠은 예술학이론을 칼스로에 예술대학교와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건물 자체도 이어져 있어서 신속하고 발빠른 연구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장점으로 소개하고자 함

2) 평 가

: 과학기술과 미술의 융합으로 새롭게 창작되는 예술을 연구하는 집단으로 매우 신박하고 또 멋진 연구 집단으로 느껴짐

: 클래식한 기존 미술을 지켜내는 것도 훌륭하지만, 인공구름과 같이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 역시 훌륭한 연구라는 생각이 듦

: 서울시에서도 여러 예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전적인 미술 및 예술 활동도 좋지만 이러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도 멋진 일이라 생각이 듦

: <u>백남준 선생님 덕분에 가슴이 웅장해짐</u>

3) 활용방안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음. 실제로 미술아카이브는 단순히 보관소가 아니라 기존 작품들을 토대로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더욱 취지에 맞다는 견해임

: 난지미술창작촌은 기존 고전적인 유화, 조각, 설치 미술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미디어아트를 진행하는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방안도 모색되었으면 함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등 예술을 다루는 기관의 장은 오래오래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이효원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라인란트팔츠 주의회, IMEX Frankfurt 2024,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 예술과 미디어센터)	
활동 목적	서울 관광 홍보 방식의 변화와 현지 정보원의 필요성 연구	
활동 기간	2024. 5. 11.(토) ~ 5. 27.(금) (5박 7일)	
활동자	성 명	이 효 원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견

K-콘텐츠를 활용한 서울관광 홍보 및 서울 고유 콘텐츠 개발 필요

- 현지 분석에 따르면, 과거 단체 위주의 관광에서 각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별 관광으로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음. 특히, 드라마나 영화같은 K-콘텐츠에서 노출된 장소에 대한 관심이 관광 수요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 K-콘텐츠를 활용해 한국과 서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여 1차 방문 수요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만이 가진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2차 방문 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 가령, 한옥, 한복, 한국음식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유의 매력을 활용한 풍부한 관광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지 KTO 지사와의 교류를 통해 개별 국가의 니즈를 수시로 파악하고, 기존 방식의 홍보를 벗어나 현지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관광 콘텐츠를 연구·개발하여 K-콘텐츠에 노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고부가가치 사업인 MICE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필요

- 세계최대규모 전시회를 다수 개최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Messe Frankfurt는 규모면에서 서울의 COEX를 압도하고 있음. 코엑스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에 더해 도심공항터미널도 가지고 있어 접근성에 대한 유리함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이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 MICE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인 만큼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여러 행사들을 유치한다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회의 도시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가 경쟁력과 관광 산업으로도 연결되는 부가가치

를 창출 할 수 있기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음.

서울관광재단 해외 지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

- 서울관광재단은 해외 지사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시에 필요 예산을 요청했지만, 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시의회 또한 의견이 분분한 측면이 있음.
- KTO 현지 지사의 경험에 따르면, 해외 지사는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사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해외 지사 설립의 이전 단계로서 KTO 해외 지사와의 MOU를 통해 서울관광재단 직원 파견 등을 우선 검토하여 시범 도입한 후,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도는 가능할 것임.

  ※ 예컨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소수 직원이 영사관 등으로 파견되어 현지 출입국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아이수루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라인란트팔츠주의회, IMEX FRANKFURT 2024, 한국관광공사(KTO) 프랑크프루트지사, 독일 올림픽 연맹, 독일 예술과 미디어센터)	
활동 목적	서울시 마이스 인프라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24. 5. 11.(토) ~ 5. 27.(금) (5박 7일)	
활동자	성 명	아 이 수 루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견

□ **마이스 관광 인프라와 시장 점유율 확보의 상관관계 분석 필요**

○ 마이스 관련 일부 지표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국제회의 개최 순위 부문 서울시가 1~2위를 기록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으나 1,000조 원이 넘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시장은 22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마이스 관련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2022년 11월 서울시는 2023년까지 인프라 규모를 6만 5천㎡에서 23만㎡로 3.5배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다만 이번 해외 시찰 중 방문했던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실내 전시장 규모만 39만㎡이며, 2030년까지 50만㎡ 이상 규모로 확장할 계획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서울시의 인프라 규모는 미흡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독일과 더불어 마이스 사업에 적극 투자 중인 중국 등지의 현황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서울시 마이스 인프라 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임.

□ **기보유 마이스 인프라 간 연계를 통해 인프라 부족의 한계 극복 방안 모색**

○ 국내 마이스 인프라는 면적 규모에서 독일이나 중국에 훨씬 못 미치는 것과 더불어 서울 지역 내외 시설이 분산 건립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이 요구되는 행사가 필요할 경우, 유치를 할 수 없거나 분산 유치를 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게 됨.

○ 이번에 방문한 KTO 프랑크푸르트 지사 의견에 따르면 개별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타 국가의 대규모 시설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만큼 기보유 중인 시설 간 교통 연결 및 주변 관광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인프라의 약점을 보완하고, 국제행사별로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과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임.

7 출장경비 정산내역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 의원별, 직원 직급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 기준

○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의원 1인당 400만원(한도), 직원 1인당 400만원(한도) 예산배정

□ 집행금액 : 48,002,920원

구 분	집행액(원)	비 고
의원여비	23,371,68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원국외여비(205-04)
직원여비	14,281,24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사무관리비	5,10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합 계	48,002,920	

□ 산출근거

○ 의원 여비 : 23,371,680원 (단위 : 원, $)

구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A+B+C)	항공료 (A)	체 재 비($)				준비금(C) (여행자보험)
				소계(B)	일비	숙박비 (실비상한)	식비	
계	23,371,680	23,371,680	12,269,400	$7,875 10,929,460	$735 1,020,080	$4,800 6,661,770	$2,340 3,247,610	172,860
이종환	3,920,870	3,920,870	2,044,900	$1,312.5 1,821,570	$35×7일 ×50% =$122.5 170,010	$160×5박 =$800 1,110,290	$78/3×15식 =$390 541,260	54,400
김원중	3,918,680	3,918,680	2,044,900	$1,312.5 1,821,570	$35×7일 ×50% =$122.5 170,010	$160×5박 =$800 1,110,290	$78/3×15식 =$390 541,260	52,210
김규남	3,881,390	3,881,390	2,044,900	$1,312.5 1,821,570	$35×7일 ×50% =$122.5 170,010	$160×5박 =$800 1,110,290	$78/3×15식 =$390 541,260	14,920
문성호	3,882,450	3,882,450	2,044,900	$1,312.5 1,821,570	$35×7일 ×50% =$122.5 170,010	$160×5박 =$800 1,110,290	$78/3×15식 =$390 541,260	15,980
이효원	3,881,520	3,881,520	2,044,900	$1,312.5 1,821,570	$35×7일 ×50% =$122.5 170,010	$160×5박 =$800 1,110,290	$78/3×15식 =$390 541,260	15,050
아이수루	3,886,770	3,886,770	2,044,900	$1,312.5 1,821,570	$35×7일 ×50% =$122.5 170,010	$160×5박 =$800 1,110,290	$78/3×15식 =$390 541,260	20,300

※ 산출기준(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여비(일비/숙박비/식비), 여비등급(제1호라목) : 원단위 절사

◦ 국가등급 : 나등급(독일) / ◦ 일비 7일, 숙박비 5일, 식비 15식

▸ 기준환율 : USD 1=1,387.87원 ('24.4.11,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직원 : 14,281,240원 (단위 : 원, $)

구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A+B+C)	항공료 (A)	체 재 비($)				준비금(C) (여행자보험)
				소계(B)	일비	숙박비 (실비상한)	식비	
계	14,281,240	14,281,240	8,179,600	$4,340 6,023,340	$420 582,900	$2,740 3,802,760	$1,180 1,637,680	78,320
오주석	3,575,480	3,575,480	2,044,900	$1,085 1,505,830	$30×7일 ×50% =$105 145,720	$137×5박 =$685 950,690	$59/3×15식 =$295 409,420	24,750
임창균	3,570,040	3,570,040	2,044,900	$1,085 1,505,830	$30×7일 ×50% =$105 145,720	$137×5박 =$685 950,690	$59/3×15식 =$295 409,420	19,310
심형준	3,569,010	3,569,010	2,044,900	$1,085 1,505,830	$30×7일 ×50% =$105 145,720	$137×5박 =$685 950,690	$59/3×15식 =$295 409,420	18,280
정재윤	3,566,710	3,566,710	2,044,900	$1,085 1,505,830	$30×7일 ×50% =$105 145,720	$137×5박 =$685 950,690	$59/3×15식 =$295 409,420	15,980

※ 산출기준(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여비(일비/숙박비/식비), 여비등급(제2호) : 원단위 절사

◦ 국가등급 : 나등급(독일) / ◦ 일비 7일, 숙박비 5일, 식비 15식

▸ 기준환율 : USD 1=1,387.87원 ('24.4.11,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사무관리비 : 5,100,000원

- 차량임차료 : 5,100,000원(6일)

○ 의정운영공통경비 : 3,000,000원

- 차량임차료 : 2,100,000원(6일)
- 통역비 : 900,000원(3개 기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250,000원

- 상임위 비교시찰 관련 기념품, 간담회 개최 등

8 관련 보도자료

□ 기관방문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 분	언 론 보 도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8개)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5/16)
	(데일리한국) 서울시의회,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와 문화·관광 활성화 논의(5/16)
	(TBS)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일 방문 문화·관광 활성화 논의(5/16)
	(스카이데일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5/16)
	(투어코리아뉴스) 서울시의회 문광위, 獨라인란트팔츠주의회 방문 문화·관광 활성화 논의(5/16)
	(디스커버리뉴스) 서울시의회 문체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우호증진 및 협력방안논의(5/16)
	(이뉴스투데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5/16)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독일 라인란트팔트주 주의회 방문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5/16)
IMEX Frankfurt 2024 (7개)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광위, 2000조원 마이스 시장 선점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5/17)
	(경인매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5/17)
	(투어코리아) 서울시의회 문광위,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유치 지원(5/17)
	(뉴스프리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방문(5/17)
	(이뉴스투데이) 서울시의회, '2025 ICCA 총회' 서울 유치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5/17)
	(뉴스메이커) 서울시의회 문체위 '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서울 유치 총력(5/17)
	(디스커버리뉴스) 서울시의회 문체위, 2,000조원 마이스시장 선점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5/17)
DOSB ZKM (6개)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독일 문화체육관광분야 유대관계 강화 위해 노력(5/20)
	(데일리한국) 서울시의회, 독일과 문화체육관광분야 관계 강화 노력(5/20)
	(투어코리아) 서울시의회 문광위원회,서울시-독일과 문화·체육 협력 모색(5/20)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서울시-독일 문화체육관광분야 유대관계 강화위해 적극 노력"(5/20)
	(디스커버리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체위,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OSB) 예술과 미디어센터(ZKM)방문' (5/20)
	(이뉴스투데이) 서울시의회, 서울시-독일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유대관계 강화(5/20)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입력 2024.05.16. 오전 9:47

이종환 위원장 "문화와 체육 분야는 양국 인구 고령화 극복의 열쇠"
김규남 의원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 가치, 주민의견 반영 꼭 필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해외 비교 시찰을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오전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0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트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중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쿤츠 의원은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재를 통한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근처에 설치된 코블렌츠 케이블카는 2007년 설치 논의가 이뤄질 당시 시민단체와 유네스코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관광수요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의 개발 정책으로 유네스코가 현황보고서를 요청하면서 경관 가치의 훼손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이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라인란트팔츠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쿤츠 의원은 "만약 개발이 필요하다면, 유네스코의 입장에서 설득 논리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최근의OECD 인구데이터를 살펴보면 독일은 OECD평균인 17.3%보다 높은 21.5%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14.9%로 OECD 평균보다는 적지만 타 국가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여 향후 5년 안에 독일보다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기록하리라는 것이 OECD의 연구 결과이다.

쿤츠 의원은 "라인란트팔츠 주의 경우, 아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유소년 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 이바지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임을 밝히며 "결과적으로는 전세대가 참여하는 스포츠 정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를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국민의힘·강북1)은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의료비 등 사회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경우 시니어친화형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의 물리적인 시설 증대가 첫 번째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쿤츠 의원에게 서울시 우수관광상품을 초청 선물로 건네며 서울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향후 양 의회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쿤츠 의원은 "세계단일위원회의 대표로 아시아 국가 도시 의회의 첫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고, 이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많은 정책 사례가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새로운 정책 발굴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광위, 2000조원 마이스 시장 선점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

입력 2024.05.17. 오전 9:53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서울 홍보관 참여사 격려, 치맥 페스타도 직접 진행
'2025 ICCA 총회' 서울 유치 위해 각국 홍보관 방문, 서울 전체 뜨거운 관심 알려
이종환 위원장 "미래 먹거리 마이스 관광에 서울시가 적극 투자 나서야"

지난 14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박람회장을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박람회장을 방문해 서울 및 각국 홍보관을 찾아 현재 각축전인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유치전에서 서울시의 승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IMEX 프랑크푸르트 2024'는 매년 독일과 미국에서 개최되는 마이스(MICE) 관광 전문 박람회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Messe Frankfurt에서 개최되며,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에서 서울 홍보관을 운영해 각국의 예비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900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해 94개국 3883명의 바이어가 다녀갔으며, 서울 홍보관은 233건의 상담 중 58건의 신규 수요를 발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국제 마이스 시장이 약 2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평가하고 있어 마이스 업계 선두주자인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2025 국제컨벤션협회(ICCA)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약 3주 후 총회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유치전에 뛰어든 각국은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박람회장을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국제컨벤션협회는 세계 최대 마이스 전문 기구로서 1963년 설립돼 총 91개국 1100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1월경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마이스 업계 선도를 위한 전략적 논의, 교육 및 토의 등을 열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연례총회에는 세계 80여개 기관과 1000여 명의 국제 마이스 주최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업계는 총회 개최 시 약 11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

생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서울시는 향후 국제컨벤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서울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MICE협회, 코엑스, 파르나스호텔 등과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유치전에 뛰어든 바 있다.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은 이번 박람회가 총회 개최지 발표 전 마지막 공식행사인 만큼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로 초청하면서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공식 행사 시작 전 서울 홍보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번 박람회를 준비한 서울관광재단을 비롯한 회원사와 관계자 모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이스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동향과 서울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질의응답으로 이어갔다.

간담회에서 이효원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K-POP 등 한류의 영향력으로 유럽권 여행객의 수적 증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에 관한 연구와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하고,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지역별로 마이스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흩어져 있는 기반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외래 관광객 증가를 위한 내용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박람회장을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이후 위원회는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아부다비 등 각국 주요 홍보관에 직접 들러 마이스 관광에 대한 서울시의 높은 관심도를 알린 후, 국제컨벤션협회(ICCA) 홍보관을 찾아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자신감과 함께 총회 유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피력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치맥 페스타에 참여해 서울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에게 치킨, 맥주, 떡볶이 등의 음식을 직접 나누어 주며, 현장에서 K-콘텐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기도 했다.

일정을 마친 후, 이종환 위원장은 "마이스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이야말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적기"라면서 "우리 위원회가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개최에 대한 서울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현지까지 찾아온 만큼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 Pn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독일 문화체육관광분야 유대관계 강화 위해 노력

입력 : 2024-05-20 15:37 | 수정 : 2024-05-20 15:37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선도기관인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OSB), 예술과 미디어센터(ZKM)를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시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네트워킹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오전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DOSB)을 방문해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관련 정보를 교환, 서울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독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선도기관인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OSB), 예술과 미디어센터(ZKM)를 직접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현재 한국과 독일을 각각 서울과 베를린시가 2036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IOC '유치희망도시'로 등록하고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트린 그라파렌트(Katrin Grafarend) DOSB 국제부 부장은 시찰단에 "양 도시가 올림픽 유치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지만 윈-윈하기 위한 전략에는 충분히 공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환 위원장(국민의힘·강북1)은 "공조가 허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별, 종목별 체육 단체들의 구체적인 MOU체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서울시 체육회, 종목별 단체 등의 독일 단체들과의 MOU 체결 등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DOSB에서는 전세계적으로 e스포츠 강국인 한국과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DOSB는 2021년 홈페이지를 통해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e스포츠가 정식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며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e스포츠야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겨루는 진정한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가 e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정립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라파렌트 부장은 "조만간 독일도 e스포츠가 스포츠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화답했다.

독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선도기관인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OSB), 예술과 미디어센터(ZKM)를 직접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튿날인 16일(현지 시각) 카를스루에시에 있는 '예술과 미디어센터(Center for Art and Media : ZKM)를 방문해 문화예술 방면의 협력관계 구축도 꾀했다.

이날 ZKM에서는 알리스테어 허드슨(Alistair Hudson)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헬가 헛캄프(Helga Huskamp) 최고운영자, 필립 지글러(Philipp Ziegler) 수석 큐레이터가 시찰단을 예방했다.

ZKM은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AEC)와 일본 동경의 인터 커뮤니케이션 센터(ICC)와 더불어 세계 3대 미디어아트 센터로 손꼽히고 있으며, 카를스루에 시가 '미디어아트' 분야로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된 배경에 큰 역할을 했다.

김원중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2)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같은 서울시의 각종 미디어아트 사업과 현재 '미디어아트' 선구자인 ZKM의 사업들과 면밀한 비교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평가해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지글러 수석 큐레이터는 "세계적으로 아직 시장규모가 작은 미디어아트의 발전을 위해 매년 특별전시를 시행한다면 서울의 매체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독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선도기관인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OSB), 예술과 미디어센터(ZKM)를 직접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현재 세계 여러 도시에서 펼쳐지는 미디어파사드 축제의 시작을 만든 것이 ZKM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ZKM의 제안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된 슐로스리히츠필레라는 우수한 사례에서 많은 점을 서울시가 배워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지글러 수석 큐레이터는 "한국은 최신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기에 이러한 점과 더불어 예술가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예술성을 접목할 수 있다면 슐로스리히츠필레의 명성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서울시의 미래먹거리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선진도시의 사례들을 우리 정책 실정에 맞게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서울시뿐 아니라 산하 관계기관에서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